



봄이 오면 꼭 가야할
 서해의 꽃섬 ‘풍도’에 핀 복수초

02 스마트 선도 산업단지 확정

제조혁신 · 노동친화 · 미래형 ‘추구’

안산 반월 · 시화 산단이 정부지정 ‘스마트 선도 산업단지’로 확정되었다. 공장이 뚝뚝해지면, 생산성과 일자리가 늘고 인구도 증가한다!

10 대한민국 일자리정책 박람회

스마트시티 안산이 주목받다.

‘스마트시티 안산, 청년창업부스’를 제목으로 내세운 안산시 부스는 청년 창업 인큐베이팅 사업 일환인 청년큐브에 입주한 청년창업기업 세 팀이 직접 운영했다.

12-13 2019 안산국제거리극축제

필(必)환경 축제에서 안전하게 만나요!

5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안산문화광장에서 열리는 안산국제거리극축제가 ‘아시아 거리예술의 메카’를 비전으로 삼아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다.

14 서해의 꽃섬 ‘풍도’

봄이면 꼭 가야할 야생화의 천국

안산에는 ‘야생화의 천국’이라 불리는 풍도가 있다. 안산9경 가운데 6경에 해당하는 풍도는 대부도 남쪽 24km 지점에 위치해 있는 작은 섬이다.

2019안산국제거리극축제
 ANSAN STREET
 ARTS
 FESTI-
 VAL

안산문화광장 및 안산시 일대
 2019. 5. 4. ~ 5. 6.
 SAT-MON

안산국제거리극축제

Welcome to the Street A

관련기사 12~13면

안산시와 SNS로 친구맺기

facebook.com/ansancity3
 story.kakao.com/ch/ansancity
 blog.naver.com/cityansan
 instagram.com/ansancity

발행일 2019년 4월 1일 발행인 안산시장 윤화섭 발행처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안산시청 공보관

무료 정기구독 신청 Tel 031.481.2042 / Fax 031.481.3224 / E-mail ansannews@korea.kr e- 브라보안산 www.bravoansan.net

ANSAN DREAM TV www.ansandream.tv

DREAM TV
 YouTube
 NAVER TV
 KakaoTV
 ANSANDREAMTV



반월국가산업단지(안산스마트허브) 전경

공장이 뚝뚝해지면, 생산성 · 일자리가 늘고, 인구도 증가 안산 반월 · 시화 산단, 정부 지정 ‘스마트 선도 산업단지’ 확정

우리나라 산업화를 이끌어 가고 있는 안산시가 정부 지정 ‘스마트 선도 산업단지’로 확정, 향후 4년여 동안 집중 투자를 받으며 새로운 도약기를 맞이하게 됐다.

지난해 6월 정부로부터 지정된 청년친화형 산업단지에 이은 두 번째 쾌거로, 현재 추진 중인 강소특구 지정, 스마트시티 조성 등과 맞물려 도시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난 2월 산업통상자원부는 안산(반월 · 시화 산단)과 창원을 스마트 선도 산업단지로 최종 선정했다. 스마트 산업단지는 데이터와 자원의 연결 · 공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면서, 새로운 산업에 대해 자유롭게 시험할 수 있는 여건도 제공하는 미래형 산업단지를 말한다.

정부는 이번에 선정된 2개 산단에 대해 향후 3~4년 동안 정부 · 지자체 · 민간 합동으로 약 4천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올해는 산자부 예산 180억 원을 국비로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산자부는 2개 산단에 인구 6만6천여 명이 유입되고, 제조업 매출은 18조 원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선정은 관계부처, 지역혁신기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합동 산단혁신 추진협의회에서 산업적 중요성, 산업기반 및 파급효과, 지역 관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결정했다.

반월 · 시화 산단은 국내 최대의 부품 · 뿌리업체(1만8천 개)와 노동자(26만 명)가 밀집된 곳으로, 안산시가 추진 중인 89블록 스마트시티와의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평가 · 선정됐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총 44개의 국가산업단지가 있으며,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그 중 10개를 ‘스마트 선도 단지’로 조성한다는 목표다.

올해에만 국비 총 2천억 원 이상이 지원되는 스마트 산단 프로젝트는 3대 핵심 분야를 포함하고 있다.

첫째, 입주기업의 제조 데이터를 수집 · 분석하여 솔루션을 제공하는 제조데이터 센터를 설립하고 공유경제 플랫폼을 구축 · 운영한다.

둘째, 기숙사 · 오피스텔, 행복주택, 협동조합형 임대주택 등 정주시설을 확대하고 문화센터, 공동어린이집, 체육관 등 문화 · 복지시설을 확충한다.

셋째, 휴 · 폐업 공장들의 리모델링을 통해 창업공간을 조성하고 입주 업종을 제한하지 않는 ‘네거티브 존’을 시범적으로 도입하며, 태양광 등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도 조성한다.

이를 위해 안산시는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와 협력해 ‘반월 스마트 산단 기획단’을 구성, 스마트 제조혁신 실현과 사람중심 일터가 되도록 정책을 연계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지난해 6월 28일 반월 · 시화 산단은 ‘청년친화형 산업단지’로 선정되며, 산단 환경개선 펀드 국비 1천5백억 원 및 민간자금 6천억 원 등 총 7천5백억 원을 투입, 창업과 노동 · 정주환경 개선 등의 지원을 약속받은 바 있다.

안산사이언스밸리(Ansan Science Valley 이하 ASV)의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안산에는 한양대학교, 경기테크노파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농어촌연구원, LG이노텍, 고려대안산병원 등 8개 기관이 모여 ASV를 조성하고 연구개발 중심의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있다.

시는 ASV를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받기 위해 특별팀(T.F.T)을 발족하고 관계 기관들과 MOU를 맺는 등 적극적으로 움직이며, ‘서해안 산업벨트 4차 산업혁명 일자리 고

도화 포용 특구’로 육성한다는 방향과 ‘과학기술 기반의 산업 및 일자리 체질 개선’이라는 추진 목표와 전략도 발표한 상태다.

안산의 도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또 하나의 큰 프로젝트는 상록구 사동 89블록에 추진 예정인 스마트시티 개발 사업이다.

시는 현재 체육시설, 주차장, 임시토취장 등으로 사용 중인 사동 1640번지 일대를 주변의 ASV, 반월 · 시화산단, 주거단지(90블록, 송산그린시티) 등 도시 인프라와 연계한 스마트도시로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시는 ‘미래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제조업 혁신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계획으로 지속가능한 경제 · 산업 발전을 목표로하고 있다.

특히, 89블록 스마트시티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20호에 근거한 ‘경기남부 4차 산업혁명 혁신 클러스터 구축 및 ASV 적극 지원’과 긴밀하게 연결된 사업으로, 도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획기적 기회가 될 수 있다는 평가다.

안산시 관계자는 “공장이 뚝뚝해지면 생산성과 일자리가 늘고 인구도 증가한다. 앞으로 안산의 연구기관 및 대학, 기업체와 협업하여 반월 · 시화 산단을 스마트화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며 “반월 · 시화 산단이 4차 산업혁명의 거점이 되어 안산시를 일자리가 넘치고 젊은이들이 모여드는 혁신도시로 조성해 나가겠다. 또한 강소특구 지정, 스마트시티 개발 사업 등을 통해 힘들어하는 제조업과 지역경제의 돌파구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4년 동안 4천억 원 집중 투자
제조혁신 · 노동친화 · 미래형 ‘추구’



소식通

길고양이 1천100마리 중성화사업

안산시는 도심지와 주택가에 자연번식하고 있는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을 위해 1천100마리의 길고양이를 대상으로 중성화사업(TNR)을 실시한다. 중성화사업은 사무를 위탁받은 안산시 동물병원 4개소(이리온동물병원 안산점, 24시 아프리카동물병원, 웰니스동물병원 고잔점, 도그플러스)에서 하게 된다.

사업 추진절차는 자원봉사자(캣맘 등)가 포획(Trap)하면 대형 동물병원에서 중성화수술(Neuter) 및 처치 후 포획한 지역에 방사(Return)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자원봉사자의 포획, 방사, 이송이 힘들 경우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동물병원에서 인력 및 차량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중성화사업은 도심 정비구역 내 서식하는 길고양이 보호 및 안전하게 서식지를 이주할 수 있도록 중성화수술 후 캣맘이 관리하는 다른 지역에 방사할 예정이다.

◇ 문의 : 안산시 농업정책과(031-481-2352)

지구를 위해
나에게 필요 없는 물건을 나눠요!

안산시는 재활용 활성화와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재활용 나눔장터'를 지난 3월 23일을 시작으로 10월 까지 매월 넷째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안산문화광장(NC백화점 앞)에서 개장한다. 평소 사용하지 않는 의류, 도서, 각종 생활용품 등 재사용 가능한 물품들을 시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로 교환하거나 판매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신분증을 지참하여 당일 접수하면 된다. 또한 재활용 놀이터, 친환경 도자기 만들기, 친환경 석고방향제 만들기, 페이스페인팅 등 체험행사와 환경퀴즈 맞히기, 풍물, 노래공연, 댄스공연 등 다양한 문화 행사도 열린다.

◇ 문의 : 안산환경운동연합(031-486-5105)

안산사랑상품권 '다운'으로 지역경제 살린다
골목상권으로 자금 유도... 소상공인 매출 증대 도모

4월 1일부터 안산사랑상품권 '다운'이 본격 발행 유통된다. 안산사랑상품권 '다운'은 대형 할인마트와 온라인 구매 불편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돕고 골목상권으로 자금을 유도하여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도모함으로써 골목상권을 살리겠다는 취지다.

안산사랑상품권 '다운'은 카드식, 지류식(5천 원, 1만 원) 2종 200억 원이 발행되며, 개인이 구매하고자 하면 월 40만 원 한도 연간 400만 원까지 구입이 가능하고 평상시는 6% 할인한다. 4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 동안은 발행 기념으로 10%를 할인해 주며, 구매가 많을 경우 발행 한도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안산사랑상품권 '다운' 가맹점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영업자는 지역 내 NH농협, 동 행정복지센터, 시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매장을 찾아가는 방문 서포터즈를 통해 신청서(계약서), 사업자등록증사본(사진촬영)을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안산사랑상품권 '다운'이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소상공인에게는 매출이 증대되어 골목경제의 마중물일 될 것"이라며 "시민들도 적극 이용해 주시고 소상공인도 많이 가입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안산사랑상품권의 조기 정착을 위해 '다운 서포터즈' 운영, 1호 가맹점 현판식, 저녁·야간 마케터 방문, 야

간 순회 캠페인 등 상품권 구매와 가맹점 모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타 자세한 가맹점 가입 관련 문의는 안산시 민원 콜센터(☎1666-1234), 상생경제과(☎031-481-2921, 2843, 2828)에서 상담이 가능하다.

※ 다운 : 많을 다(多)에 따뜻할 온(溫)을 합친 단어로, 소상공인과 골목 경제까지 다함께 따뜻해지길 바란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우리집 수도물 수질,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세요!

현장에서 결과 확인... 적합스티커 부착, 수질검사 성적서 발부



안산시 상하수도사업소는 수도물의 수질이 궁금한 가정을 직접 방문해 무료로 수질을 검사해주는 '찾아가는 수도물 수질검사'를 실시한다.

'찾아가는 수도물 수질검사' 서비스는 배관이 노후화되었거나 막연한 불안감 등으로 수도물의 수질이 궁금한 가정에서 신청을 하면, 일정을 협의한 후 담당자가 가정을 방문해 무료로 수질 검사를 실시해준다. 검사결과 는 현장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하다.

검사결과 적합 수도물에 대하여는 수도물 적합스티커 부착과 수질검사 성적서를 발부하며, 부적합 수도물에 대해서는 옥내배관 교체 권고 및 장기적인 노후 배관 교체사업 등에 활용한다.

아울러 준공된 지 20년이 지난 다중이용시설 및 건강 취약계층이 밀집

한 보육시설 등을 직접 찾아가 무료로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서비스도 진행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물사랑 홈페이지(<https://ilovewater.or.kr/>)를 참조하거나 안산시 상하수도사업소 정수과(031-481-3825)로 문의하면 된다.

상하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찾아가는 수도물 수질검사로 수도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해소되길 바란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도물을 마실 수 있는 음용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문의 : 안산시 상하수도사업소(031-481-3825)



‘상록구 카네이션 하우스’ 개소

어르신 위한 공동체 기능 회복 및 사회안전망 보완



카네이션하우스 전경

안산시는 상록구 지역 어르신들의 여가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될 ‘상록구 카네이션 하우스’ 개소식을 지난 3월 14일에 가졌다.

그동안 단원구 지역(선부동)에만 카네이션 하우스가 있어 상록구 지역 어르신들이 시설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그러나 이번에 상록구에 카네이션 하우스가 새로 건립됨에 따라 이 지역 어르신들이 좀 더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문을 연 상록구 카네이션 하우스는 상록구 이동 양지편 2길 20(이동) 무지개 경로당 옆에 위치해 있으며,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체조, 요가 방문간호 등 건강 프로그램과 텃밭 가꾸기, 노래교실 등 여가 프로그램, 소일거리 제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상록구 카네이션 하우스가 어르신들의 여가 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안산시는 앞으로도 지역 어르신들이 불편 없이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노인 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문의 : 안산시 노인복지과(031-481-3351)

가사·간병 방문지원 서비스 이용자 모집

신체 수발, 건강 지원 등 제공… 자기부담금 면제 또는 최대 2만여 원



안산시는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가사·간병 방문지원 서비스’ 이용자를 연중 모집한다. 가사·간병 방문지원 서비스는 만 65세 미만의 저소득 취약계층 중 일정 요건을 갖춘 대상자에게 가사·간병 서비스를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대상자 및 차상위계층 중 가사·간병이 필요한 사람이다. 구체적인 요건으로는 장애인(1~3급),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소

년소년가정·조손가정·한부모가정의 아동 등이며, 올해부터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대상자도 포함된다. 서비스 내용으로는 신체 수발 지원, 건강 지원, 가사 지원, 일상생활 지원 등이며, 월 24시간, 월 27시간, 월 40시간(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대상자만 해당)의 이용시간이 적용된다. 본인부담금은 대상자 자격 및 이용시간에 따라 월 납입금 기준으로 면제 혹은 최대 2만2천680원으로 산정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고 신청 후 10일 이내에 선정 결과를 본인에게 통지한다. 시 관계자는 “가사·간병 방문지원 서비스 사업을 통해 몸이 불편한 저소득 대상자의 생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문의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안산시 복지정책과(031-481-3148)

만 12세까지 국가필수예방접종 완료 하세요

17가지 예방접종 무료… ‘예방접종도우미’ 통해 의료기관 조회



상록수·단원보건소는 감염병에 취약한 영유아의 건강을 위해 권장연령에 맞춰 국가필수예방접종 받기를 당부했다.

만 12세 이하 아동(200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은 17종의 예방접종(BCG, B형간염, DTaP, 소아마비, 뇌수막염, 폐렴구균, 일본뇌염, 사람유두종바이러스 등)을 전국의 보건소 또는 지정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으며, 지정 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예방접종은 감염병을 막는 가장 손쉽

고 안전한 방법으로 본인 건강은 물론 가족과 친구의 건강을 보호한다.

질병관리본부와 상록수·단원보건소에서는 접종시기 도래 및 미접종자에 대해 개별 메시지, 유선연락 등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백신 거부나 아동의 학업, 보호자의 사회활동 등으로 일부 접종 지연자가 발생하고 있다.

단원보건소 관계자는 “해외에서 예방접종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접종률이 떨어질 때 질병이 다시 유행하는 사례가 있다”며 “자녀가 아직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았다면 자녀는 물론 함께 생활하는 친구들의 건강을 위해 예방접종을 꼭 받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문의 : 상록수보건소(031-481-5891)
단원보건소(031-481-6471)

소식通

단원보건소 재활프로그램 수요조사

단원보건소는 2019년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과 관련하여 양질의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단원구 주민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지난해 단원보건소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은 장애인 및 만성퇴행성 질환자 등 재활이 필요한 주민 6천 300명이 참여했고, 신체기능 향상, 사회참여활동 증진, 2차 장애발생 예방 등 건강 취약계층의 재활촉진과 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했다. 이번 수요조사는 단원구 등록 장애인 및 재활이 필요한 주민을 대상으로 3월 22일부터 4월 30일까지 실시한다. 수요조사를 위한 신청서는 단원보건소, 안산시장애인복지관, 안산시상록장애인복지관 등에 비치되어 있다.

◇ 문의 : 단원보건소(031-481-6624)

선부3동 달산경로당 문열어

안산시는 선부3동 선사로 일원 경로당 부족에 따른 어르신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달산경로당을 신축 건립하고 지난 3월 20일 개소식을 개최했다.

개소식에는 지역단체장 등 100여명이 참석하여 헌판식 등 기념행사가 진행됐고, 경로당 어르신들과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주민화합의 장으로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 시 관계자는 “달산경로당이 화합과 여가를 즐기는 즐거운 쉼터가 되길 기원 한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헌신과 사랑에 보답하고자 노인복지시설 확충은 물론 1사 1경로당 자매결연사업 확대시행 등 다양한 노인복지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단원구 선사로1길 17에 위치한 지상1층 연면적 126.09㎡ 규모의 달산경로당은 지난해 8월 착공하여 12월 27일 완공됐다.

◇ 문의 : 안산시 노인복지과(031-481-3343)

보건소에서 ‘건강검진’ 받으세요

안산시는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들에게 ‘어르신 무료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어르신 무료건강검진’은 일반검진 및 치매검사, 우울증검사, 구강검진을 시행하여 국가건강검진에서 누락되어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질병에 취약한 노인들이 방치되어 발생하는 사회적비용 감소를 목표로 한다. 상록수·단원보건소에서는 노인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검진항목을 추가했으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하여 가정방문검진, 한글을 읽지 못하는 어르신에게는 검사지 읽어 드리기, 검진당일 1:1 동행서비스를 통하여 원활하게 각 검사를 진행함으로써, 수검율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다. 올해 ‘어르신 건강검진’은 만 65세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홀수년도 출생자가 대상이며, 지난해에 검진을 받지 못했다면 올해도 검진이 가능하다.

◇ 문의 : 상록수보건소(031-481-5964)
단원보건소(031-481-6622)



화백의 손에서 탄생한 수만 송이의 장미꽃 단원미술관, 원로작가 성백주 작품 기증 특별전 열어



작품활동 중인 성백주 화가

반평생 장미를 소재로 작품 활동을 이어온 원로작가 성백주 작품 기증 특별전 '수만 가지 색, 오만 가지 장미'가 오는 5월 19일까지 단원미술관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지난해 안산시에 기증한 100점의 작품을 중심으로, 시민들과 나누고자 한 작가의 뜻을 기리고, 반평생을 그림 그리는 일에 몰두하면서 내면의 자유로움과 역동적인 생명력을 예술로 구현하고자 했던 작가의 삶과 예술세계를 살펴볼 수 있다.

성 화백의 작품세계는 크게 '장미'와 '비구상' 작업으로 나뉜다. 그의 대표작은 '장미'이다. 성화백의 손에서 탄생한 수만 송이의 장미꽃은 어느 하나 똑같이 표현된 장미가 없다. 그의 손끝에서 피어 난 장미들은 작가 삶의 여정 속 내면 세계가 자연스럽게 색과 조형언어로 투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장미의 화가'로 불리는 그이지만, 장미보다 자신의 예술적 신념을 두드러지게 보여줄 수 있었던 비구상에 대한 관심과 열망이 매우 크고 망백(望百)이 지난 지금도 비구상 작업에 대한 욕심을 드러내기도 한다.

성백주 화백에게 비구상 작업은 그가 예술과 현실, 생존의 경계에서 늘 맞닿아 있다가 한 번씩 슬그머니 나타나게 되는 예술에 대한 본능적 욕구였을 것이다. "비구상은 미술의 본질을 추구하는 실험 작업의 일환이다"라는 그의 말은 이러한 조형의지를 잘 나타내 준다.

선과 색을 통해 한정할 수 없을 정도로 다채로운 예술을, 또 희망을 * 사유하는 성백주 화백은 지난 30년을 안산시에 정착하면서 왕성하게 작품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올해 94세가 된 노 화가는 지금도 여전히 매일 아침 일어나 그림 그리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

단원미술관 관계자는 "장미를 소재로 한 작품 외에 풍경, 스케치, 비구상 작품에 이르기까지 총 3개의 섹션으로 구성하여 성 화백의 화업을 시대별로 돌아 볼 수 있으며, 작가의 인터뷰 영상과 아카이브 자료를 통해 그의 삶과 작품세계를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사유(思惟): 개념, 구성, 판단, 추리 따위를 행하는 인간의 이성작용

◇ 문의 : 단원미술관(031-481-0508) / 이선희 명예기자_jamyou70@hanmail.net



‘봄이 찾아온’ 와동 꽃 양묘장

팬지 · 비올라 · 데이지 · 프리물러 등 봄꽃 25만 포기 ‘활짝’



양묘장에서 꽃체험을 하고 있는 부곡유치원 어린이



화사하게 안산의 거리거리를 수놓으며 봄소식을 전해줄 예쁜 꽃들이 와동 꽃 양묘장에 활짝 폈다. 보랏빛 · 노란빛 색 고운 접시꽃 팬지는 벨벳처럼 부드러운 꽃잎을 뽐낸다. 작은 팬지 비올라는 3~5cm 꽃잎에 두 가지 색상을 피워낸다. 장미꽃을 닮은 프리물러, 민들레 비슷한 모습의 데이지, 나무쑥갓 마거릿 꽃, 25만 포기 화초들이 저마다 고유의 색과 향으로 봄이 왔음을 알렸다.

강병준 반장은 "이맘때쯤 양묘장은 25만 포기 봄꽃들이 내뿜는 싱그러움으로 가득 찬다."며 "와동 꽃 양묘장이 안산시민 누구나 좋아하는 명소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양묘장은 꽃들이 손가락 두 마디 크기의 어린 모종 상태로 들여와 겨우내 보살피며 꽃망울을 터트릴 때쯤 안산시 전역으로 내보낸다. 안산의 25개 행정복지센터, 기관, 와~스타디움, 문화광장, 거리 화단, 곳곳의 교통섬으로 옮겨진다.

3월 14일, 양묘장에선 어린이 꽃 체험 프로그램이 한창이었다. 전해정 부곡유치원 교사는 "안산 거리에서 잘 가꿔진 꽃들이 계절별로 바뀌는 걸 봤어요. 이곳에서 키워 보내시는지는

처음 알게 됐는데요. 많은 분들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유치원 아이들도 고운 꽃들을 직접 보고, 느끼고 체험 하는, 좋은 시간이 됐습니다."라고 했다.

아이들은 꽃 길 사이로 걸으며 꽃에게 인사했다. "안녕! 나는 부곡유치원 별누리반 박도윤이야. 내가 물 줄게. 노래도 들어 봐"

꽃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이두진 생태해설사는 "이 시간에 아이들은 자연과 교감을 나눈다."며 "꽃보다 더 예쁜 아이들이 꽃밭 산책을 하고, 꽃이 주는 자연 물감으로 손수건 염색을 한다. 꼬마 정원사가 돼서 화분에 꽃을 심기도 하고... 생태적 감수성 발달에 좋은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와동 꽃 양묘장은 2003년 총 3천280㎡ 넓이 비닐하우스 5개동으로 조성됐다. 봄 · 여름 · 가을 계절별로 25만 포기 씩 75만 포기 꽃들을 키운다.

◇ 문의 : 와동 꽃 양묘장(단원구 순환로 416) / 안산시 녹지과(031-481-2327) 백미란 명예기자_whity0218@naver.com / 사진_김진국



사회적협동조합



신나는 문화학교 '자바르떼', 예술을 공유하다

“편안한 분위기로 삶에 녹아드는 예술을 나누겠다”

안산의 크고작은 행사와 축제 무대에서 열정적으로 공연하는 문화예술사회적기업 신나는 문화학교 '자바르떼'를 소개한다.

자바르떼는 문화예술교육 기획, 축제·공연·행사·체험 기획, 청소년문화공간 운영과 마을사업을 한다. 2004년 신나는 문화학교 교사협의회에서 시작해 비영리민간단체로 인가를 받은 후 2010년에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았다. 공연기획팀, 예술교육팀으로 운영하는 자바르떼는 안산과 경기도에서 활동하는 공연팀들과 오랫동안 관계를 맺으며 좋은 공연

을 기획하고 예술강사를 배출해 공공기관 등에 연결시키며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예술이 일반인들에게 쉽게 다가가 시민들이 예술을 공유하며 문화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문화공공재의 역할을 하겠다는 가치를 표방하며 공연수익 창출보다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예술을 지향한다. 라은영 대표는 “한 번의 유희로 끝나는 게 아니라 편안한 분위기로 삶에 녹아드는 예술을 함께 나누겠다”며 자바르떼가 운영하는 마을공간 '침표'를 소개했다.

단원고 옆에 위치한 문화공간 '침표'는 그동안 세월호 생존

아이들과 고잔동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쉬고, 놀고, 얘기하며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공간으로 사용되었으며, 지금도 청소년의 쉼과 소통 공간으로 활용한다. 청소년들이 이용하지 않는 낮에는 마을 주민에게 개방해 엄마들이 모여 사연 있는 밥상 모임도 하고 '엄마 기획단'이라는 이름의 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우드버닝, 자수, 핸드드립 커피를 배우는 문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 작은음악회, 축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여러 세대가 함께 즐기며 아이들을 함께 키울 수 있는 마을만들기의 거점이 된다.

라은영 대표는 “자바르떼는 올해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 문화예술을 공유할 수 있도록 캘리, 공예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연립단지로 '찾아가는 공방'을 기획하고 있다. 아이들이 뛰노는 놀이터가 사라진 고잔동에서 '침표'는 주민들이 이웃집에 마실 가듯 들르는 수다방이 되어 일상을 공유하며 정을 나누는 장소가 되기 바란다.”고 했다.

◇ 문의 : 신나는 문화학교 '자바르떼'(031-408-8541)
신선영 명예기자_woghkah@hanmail.net



마켓포레스트축제에서 공연팀과 아이들이 자유롭게 공연을 즐기고 있다.



나무를 태워 작품을 만드는 우드버닝 수업 중

청년창업의 꿈

안산시 청년큐브를 가다②

안산시는 경기도의 'NEXT 창조오디션' 공모 선정을 통해 지역 내 비어있는 상가를 활용해 청년 창업공간인 청년큐브를 조성·운영해오고 있다. 청년의 자립과 성장을 지원하는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사업에 선정돼 다양한 융복합 실험을 하고 있는 청년들의 꿈을 향한 여정을 소개한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건강한 '아토즈베베(ATOZ BeBe)'



국내 일회용 위생용품이 사용자의 건강을 위협한다는 기사가 지속적으로 이슈화 되고 있는 가운데 안전하고 건강한 위생용품을 제작하는 청년기업 '아토즈베베'를 찾았다. 지난해 11월 예대캠프에 입주한 '아토즈베베'는 아이부터 어른까지 전 세대를 위한 면 위생용품을 제작한다.

한양대 에리카캠퍼스에서 경영학을 전공한 한동규 대표(38, 사진)는 자동차회사 재무팀에서 8년여 동안 근무했다. 결혼 후 잦은 야근으로 가정에 소홀할 수밖에 없었던 그는 아이가 태어난 후 가족에 집중하기로 했고, 창업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한 대표는 “일회용 기저귀가 통풍이 되지 않아 엉덩이가 짓무르는 아이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광목천을 사다 세탁소에서 박음질해서 사용해봤어요. 그런데 천기저귀는 세탁이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고 외출 시 뒤처리도 불편했죠.”라며 육아의 고충을 덜기 위해 100% 순면 천기저귀를 개발하게 된 배경을 소개했다.

안산이 고향인 그는 반월공단을 보면서 자신의 사업을 해야겠다는 꿈을 키워왔고 가족의 건강에 포커스를 맞춘 제품으로 18년 2월에는 경기도 청년공동체 공모 사업에 선정돼 지원금을 받았으며, 12월에는 제품 KC인증을 받으며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했다.

아이와 여성의 필수 위생용품인 기저귀와 생리대는 사용자의 건강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일회용 기저귀와 생리대는 편리성과 흡수력이 뛰어난 반면 고분자흡수체가 사용

되어 환경호르몬을 발생시키고 이것이 인체에 접촉했을 때 어린 피부에 문제를 일으켜 생리주기의 변화, 생리통증 증가, 피부 알레르기 등 부작용과 암 유발 원인이 될 수 있다.

대체재인 시중 면 생리대는 흡수체까지 순면을 사용하지 않으며 화학성유로 된 방수천을 사용해 통풍성이 낮고 손세탁만이 가능하다. 100% 순면으로 제작되는 아토즈베베 제품은 피부염의 발생을 최소한으로 낮춰주며 면 흡수체를 사용한다. 기저귀는 아기옷 빨래처럼 기계세탁이 가능하다. 패드와 방수 커버가 연결되어 있어 관리도 편하고 건조도 빠르다. 두레와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3단계 스냅단추를 달아 9가지 사이즈로 맞춰 채울 수 있다.

순면 기저귀부터 시작한 제품은 순면 생리대, 순면 요실금 라이너로 확장됐다. 아토즈베베는 ‘엄마가 행복하면 아기도 행복합니다. 엄마가 건강하면 아기도 건강합니다’를 모토로 아이부터 어른까지 건강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신념으로 믿을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한다. 현재는 온라인으로만 판매되고 있지만 대형마트 등 판로를 구축하며 유통채널 다각화에 힘쓰고 있다.



아토즈베베의 제품들

엄마가 행복하면
아기도
행복합니다

◇ 문의 : 아토즈베베(www.atozbebe.com 031-482-3020)
신선영 명예기자_woghkah@hanmail.net



대한고려인협회, 사단법인 너머, 안산의제21, 안산희망재단 공동 주최 연해주 독립선언 기억... 고려인독립운동 기념비 건립 500인 선언

2019년은 3.1운동,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그리고 2019년 3월 17일은 연해주에서 고려인들이 대한국민의회를 결성하고 독립을 선언한지 100년이 된다. 대한국민의회는 대한민국 최초의 임시정부이며, 독립선언에는 “2천만 대한국민을 대표하여 일본과의 혈전을 선포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같은 해 8월, 대한국민의회는 상해임시정부와 통합하고 세계 평화와 대한의 독립을 위해 연해주 독립지사들의 활동 무대를 더욱 확장했다.

홍범도 장군은 1920년 6월 독립군과 연합해 봉오동에서 일본 정규군을 격파했고, 이어 10월에는 북로 군정서와 대한독립군, 대한신민단 독립군 등과 연합하여 청산리에서 일본군과 맞붙어 완벽한 승리를 이루었다. 연해주 고려인의 독립운동은 이렇듯 대한독립의 밑거름이 되었다. 하지만, 연해주 고려인은 1937년 중양아시아로 강제이주 되었다.

이렇듯 대한독립운동 발전에 활화산의 역할을 한 3.17 독립선언을 기리기 위한 ‘연해주 대한국민의회 3.17 독립선언 100주년 기념식’과 ‘고려인독립운동 기념비건립 국민추진위원회’ 출범식이 3월 17일 오후 2시, 선부동 뗏목 삼거리에서 진행됐다. 이번행사는 대한고려인협회와 사)너머, 안산의제21, 사)안산희망재단이 주최하고 고려인독립운동 기념비건립 국민추진위원회가 주관했다. 상임대표로는 기가이소피아(허위 의병장의 후손), 이천환(안산희망재단 이사장), 신은철(사단법인 너머 대표이사)가 맡았으며, 안산의 여러 시민사회단체, 정당인, 단체장, 다양한 분야의 시민들이 함께 했다.

주요행사로 고려인문화센터와 선부고등학교, 뗏목삼거리 일대에서 3.17 만세행진이 재연

됐고, 무대주변으로는 독립운동 영웅과 기념촬영 부스가 마련됐다. 고려인 먹거리 장터와 바자회, 안산시립합창단과 416합창단, 고려인의 기념공연도 펼쳐졌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고려인 청소년들과 독립운동 영웅 앞에서 사진을 찍는 참가자들의 모습이 눈길을 끌었다.

행사 관계자는 “연해주 고려인 독립운동은 세계평화와 대한독립의 밑거름이 되어 지금 대한민국은 번영한 자주독립 국가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 우리는 연해주 독립운동을 기억하지 못한다. 보석과도 같은 고려인 독립운동을 기억하지 못해 3.17 연해주 독립선언 기념식을 100년이 지난 이제야 처음으로 하게 되었다.

대한민국에 있어 고려인독립운동은 대한의 긍지이자 빛나는 내일이다. 우리는 고려인독립운동을 기억하고 말하기 위해 기념비를 건립하려는 것이다.”고 말했다. 기념비 건립 장소는 고려인과 시민의 접근성이 좋은 공공부지로 추진할 계획이다.

* 고려인: 러시아를 비롯한 독립국가 연합에 살고 있는 한국인 교포를 통틀어 일컫는 말

◇ 문의 : 고려인 지원단체 사)너머 031-493-7053 / 송민아 명예기자_junseo1000@hanamil



INTERVIEW

66

사람들의 삶을 어루만져주는 역할을 하는 게 문화

99

백정희 (안산문화재단 대표이사)



오는 5월, 15회를 맞는 안산국제거리축제에 앞두고 안산문화재단 백정희(65, 사진) 대표이사를 만났다. 안산문화재단은 2004년 안산문화예술의전당이 건립되고 2013년 재단으로 출범해 지난해 8월 제4대 안산문화재단 대표이사로 백정희 교수를 선임했다. “사람들의 삶이 고달플수록 문화가 할 일이 많아지고 쉽터가 돼줄 수 있다. 사람들의 삶을 어루만져주는 역할을 하는 게 문화”라고 말하는 백정희 대표다. 어릴 때부터 무용을 해온 예술가로, 1995년 모교 한양대에서 정년트랙(full time professor) 교수로 임용돼 후진 양성에 힘써왔고, 예술을 실생활에 접목하는 다양한 연구 과제를 진행했다. 또 교수로 재직하면서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자연사박물관장을 맡아 문화예술계 행정가로서 경력을 쌓았다. 다음은 백정희 대표와의 일문일답이다.

Q 올해 안산국제거리축제의 특색을 말한다면.

도시 축제의 백미, 화려한 퍼레이드가 준비돼 있다. 2019년 15회를 맞는 안산거

리국축제는 5월 4일부터 6일까지 축제에 참여하는 모든 예술가들이 수놓는 형형색색 퍼레이드로 축제의 서막을 알린다. 거리국축제는 이름 그대로 도시의 거리에서, 광장에서 다양한 공연예술이 펼쳐지는 축제다. 화려한 축제의 뒷받침에는 안전과 환경문제를 빼놓을 수 없다. 이번 축제에 유럽과 동남아에서 100명 넘게 들어오는 공연예술가들도 안산문화재단과 출입국관리소의 범죄조화를 통과해야한다. 재단은 안전과 관련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살피고, 플라스틱·비닐·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안전·환경축제가 되도록 준비하고 있다.

Q 안산문화재단의 구체적 업무는 무엇인가?

크게 안산국제거리국축제·단원미술제·공연기획·지역예술지원사업을 한다. 예술의 전당이 2004년 건립되어 재단이 발족했고, 거리국축제는 15년째다. 국제거리국축제가 생기고 재단 직원들은 전문가가 됐다. 직원의 발전은 곧 재단의 발전이다. 직원들이 업무에서 활활 날도록 엇그제 부 중심에서 팀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했다. 전문가로서 직급에 구애 없이 일을 추진할 수 있다. 단원미술제도 올해 새로움의 원년이 될 것이다. 기존의 외부 운영위원장이 협의로 진행하던 행사를 앞으로는 재단에서 단원의 위상에 걸 맞는 미술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기획공연이 펼쳐지는 예술의 전당은 시민의 것이다. 시민들의 삶을 가꿔 주는 문화예술이 공유되는 장소가 돼야한다. 개인이나 특정한 단체의 사익을 위한 행사장으로 사용하는 것은 지양하겠다.

Q 안산문화재단 대표이사로서 마음가짐은?

문화사업은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는다. 단원 콘텐츠도 5년 이상 내다보고 가는데 저 이후에 다른 대표이사가 오더라도 받아서 갈 수 있는 기반은 다져놓아야 될 것 같다. 그런 환경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킬러 콘텐츠(killer contents, 미디어 시장의 판도를 재편할 만큼의 영향력을 지닌 매력적인 핵심 콘텐츠)를 개발·홍보하는 마케팅에 주력할 생각이다. 사업은 마케팅이고, 우리의 마케팅 대상은 관객이다. 문화예술도 어쨌든 마케팅이다. 관객의 마음을 살 수 없다면 어떤 공연도 안 된다. 지원사업도 많은 사람이 원해야 성과가 있다. 애정을 갖고 바라봐 주시기 바란다.

◇ 문의 : 안산문화재단(031-481-4005) / 백미란 명예기자_whity0218@naver.com



안산시 창업지원기관을 소개합니다

예비창업부터 성장 후 기업까지 창업 전 단계 지원



안산에는 청년큐브, 한양대 에리카 창업보육센터, 안산대 창업보육센터, 중진공안산 포스트비(POST-BI), 청년창업사관학교, 경기테크노파크 등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 예비 창업부터 성장 후 기업까지 창업 전 단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기관들로 가득하다.

청년큐브는 안산시에서 운영하고 청년창업가를 지원하는 대표적인 공간으로 월피동(서울예술대 부근), 사동(한양대 부근), 초지동(신안산대 부근) 총 3곳에 있다. 이곳에서는 아이디어는 있으나 자금이나 기술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자립과 성장을 지원하고 있으며 총 50개의 사무공간과 시제품 제작이 가능한 랩톱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지원내용은 창업공간 최대 3년 제공, 사업화 지원(교육, 멘토링, 시제품 제작 등), 기업진단, 기술 보호, 엑셀러레이팅(Accelerating)이며 입주 공모는 매년 6월과 12월

이다.

한양대 에리카 창업보육센터는 최고 수준의 인프라를 자랑하는 곳으로 입주 공간 127개와 회의실, 구내식당, 사워부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지원 내용은 저렴한 비용의 입주 공간, 한양대학교 에리카의 인적·물적 인프라, 센터가 구축하고 있는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등이 있다. 입주 공모는 공실현황에 따라 1~4개월 단위로 수시 진행된다.

안산대 창업보육센터는 20년 이상의 노하우를 갖춘 곳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이며 다른 산업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여 미래 국가 산업의 핵심 역할을 하고, 능력으로 사업의 성패가 크게 걸려있는 전자부품, 영상 및 통신장비 분야를 특성화한다.

중진공안산 포스트비(POST-BI)는 10인 이상이 사용할 수 있는 대규모 시설을 갖추었으며 박사, 변호사 등 전문 인력

중 2명 이상을 확보하고 있다.

청년창업사관학교는 기본기를 제대로 갖춘 도전의식과 창의정신이 넘치는 청년 CEO를 길러낸다는 목표로 2011년 경기도 안산시에 개교했다. 지원내용으로는 총사업비 70% 1억 원 이내 보조금, 사무실, 교육, 투자, 마케팅 등이 있다.

경기테크노파크는 지식산업창조의 요람으로 정보통신/전자, 자동차 부품, 바이오(Bio)기술, 로봇 분야를 특성화한다. 그리고 청년창업지원 공간, 창업경진대회 개최, 희망이음 프로젝트 등 안산시와 함께 다양하게 청년창업가들은 지원하고 있다.

그 밖에 안산시에서는 청년 문화예술 스타트업 기업 육성, 사회적 경제 창업 교육, 청년창업 가이드 사업 등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창업지원기관 문의

안산시 일자리정책과(청년큐브) [031-481-3984]
한양대 에리카 창업보육센터 [031-400-4975]
안산대학교 창업보육센터 [031-400-7085]
청년창업사관학교(안산) [031-490-1554]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 [031-492-9915]
경기테크노파크 [031-500-3000]



인치광 명예기자_cheee0806@naver.com

한국와이퍼(주) 노사 공동 지역공동체 복지기금 마련... 비정규직 지원



전달식 참석자 단체사진

2017년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10.7%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주요 회원국가와 비교하여 매우 낮은 편이다. 2016년 기준 핀란드(64.6%), 영국(23.7%), 독일(17.0%), 이웃나라 일본은 17.3%의 노동조합 조직률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대부분 노동조합이 대기업 위주로 조직돼 소규모 사업장 등 취약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반월시화공단에 상생과 연대가 필요한 이유며, 이를 실천하는 기업도 있다.

자동차용 와이퍼 생산업체 한국와이퍼(주)와 한국와이퍼노동조합은 (사)일하는사람들

의생활공제회 '좋은이웃'(이하 '좋은이웃')에 안산·시흥 지역 노동자들의 처우개선과 복리증진을 위해 써달라며 지역공동체복지기금 1천2백만 원을 전달했다. 이 기금은 한국와이퍼 노사 공동이 단체 협약을 통해 조성한 것이다.

3월 15일, '좋은이웃' 사무국에서 안산지역 노동단체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금 전달식이 진행됐다.

최윤미 한국와이퍼노동조합 분회장은 "우리는 기부 차원을 넘어 노동조합의 문턱조차 넘기 힘든 상황의 노동자들을 위해 활동하는 것으로 기금 활용에 참여하고자 한다. 좋은이웃이 취약한 노동자들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 주는 역할을 하는데 지역공동체복지기금 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주역 한국와이퍼(주) 상무이사는 "회사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사회공헌이라는 큰 의미에서 결정하게 됐다.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좋은 일에 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중현 '좋은이웃' 공동대표는 "지역공동체복지기금은 노동운동의 새 지평을 여는 첫걸음인 것 같다. 이제는 노동조합이 회사의 담장을 넘어 이웃과 지역, 그리고 사회전체가 함께하는 따뜻한 연대의 첫걸음에 함께 해줘서 감사하다. 기금은 지역 노동자들의 의견을 모아 잘 활용하겠다."고 감사의 인사를 했다.

'좋은이웃'은 지역공동체복지기금을 통해 지역의 비정규직, 미조직 노동자들을 위한 사업들을 확대할 계획이다.

◇ 문의 : (사)일하는사람들의생활공제회 좋은이웃(031-411-2323)
송민아 명예기자_junseo1000@hanmail.net



‘다섯 번째 봄’, 4월의 기억과 마음을 함께 나누다 세월호 참사 5주기 다양한 추모 행사 열려



어느덧 세월호 참사 이후 다섯 번째 봄을 맞게 됐다. 5년이란 긴 시간이 흘렀지만, 안산의 봄은 슬픔이란 말로도 담기 어려운 아픈 기억이 도사 곳곳에 배어 있다.

다가오는 4월, 시간의 힘도 어쩔 수 없는 사람들의 기억과 마음을 모아 세월호 참사 5주기 추모 행사가 다양하게 마련된다.

먼저 가장 주목할 만한 행사는 세월호 참사 5주기 ‘1000인 합창단 공연’이다. 개인 및 단체 참가자들 천여 명이 한 달여 기간 동안 합창 연습을 진행하며 세월호 이슈에 대한 다양한 담론을 함께 나누는 프로젝트다. 추모의 마음과 기억의 온정을 시민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기획된 이번 행사는 연습 기간 중 세월호 가족과의 만남, 공동체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되며, 이 과정을 유튜브로 제작할 계획이다. 1000인 합창단 공연은 4월 13일 오후 2시 화랑유원지 대공연장에서 진행된다.

마을 곳곳에서 4.16이후 더 나은 공동체를 꿈꾸는 이웃들이 준비한 ‘우리동네 수다마당’도 진행된다. 3월 14일 일동을 시작으로 와동, 월피동, 선부동 등 안산지역 마을 약 10여 곳에서 한 달 넘게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이웃들과 세월호의 가치와 의미를 함께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시간으로 꾸며진다. 3월 29일에는 사동 복합문화공간 마을숲에서 ‘언니들의 푸드테라피-감골 밥블레스유’ 행사가, 4월 11일에는 초지동 토닥토닥 관촬아 책방에서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6개의 가치’라는 주제로 오연호 오마이뉴스 대표가 강의한다. 마지막으로 4월 16일에는 평생학습관 대강당에서 ‘죽음이라는 이별앞에서’라는 주제로 정혜신 박사의 강의를 열릴 예정이다.

청소년이 주체가 되어 세월호 참사를 기억해보는 익스프레스 원스 메모리(express one's memory) 시즌3 청소년창작경연 ‘별꿈’도 진행된다.

다. 세월호 참사로 잃어버린 250명의 꿈을 함께 기억하고, 꿈꾸는 별이 되어 꿈을 표현한다는 의미를 지닌 ‘별꿈’은 청소년들의 꿈과 미래를 응원하고 지지하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된 행사다. 동영상 사전심사 후 본선에 진출한 팀들은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4.16이후 변화된 세상을 추구하는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창작 댄스, 노래, 랩으로 무대에서 선보이게 된다. 공연은 4월 6일 오후 5시 안산문화광장 썬크광장(홈플러스 앞)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안산온마을센터는 4월 13일 화랑유원지에서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시민참여형 체험 활동 ‘일상에서 기억하다’를 진행한다. 시민들이 화랑유원지를 새로운 ‘기억공간’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세월호 참사 5주기 안산지역 준비위원회 관계자는 “잠시 잊었던 첫 마음과 서로를 품었던 시간들을 기억하며 많은 시민의 참여와 힘으로 다섯 번째 봄을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문의 : 4.16안산시민연대(031-483-0416)
송보림 명예기자_treehelper@gmail.com

안산시, ‘정크디자인센터’ 운영

폐가구 · 폐원단 재활용... 버려진 폐기물에 새 생명을!

지구가 쓰레기로 몸살을 앓는 가운데 리사이클(recycle), 업사이클(up-cycling · Upgrade+Recycling) 등 재사용 바람이 분다. 목재나 팔레트, 스크랩 우드 등을 못질하고 색을 입혀 새롭게 재탄생한 물건들이 놓인 골목은 레트로 감성을 불러일으키며 핫한 공간으로 만드는 데 한몫을 한다.

리사이클은 사용이 끝난 자원을 재생 · 재사용하는 것을 넘어 사용 후 폐기된 제품을 회수해 소원로나 중간 원료로 되돌려 자원으로서 재이용하는 재자원화까지 아우르며, 업사이클은 디자인을 더한 재사용을 뜻한다.

안산시는 수명을 다한 제품에 새 숨결을 부여하는 ‘정크디자인센터’를 10년째 운영하고 있다. 안산시자원회수시설 내 위치한 정크디자인센터는 버려지는 자원에 디자인을 더해 가치 있는 제품을 만드는 사업으로 10명의 일자리사업 참여자가 폐기물을 활용해 장바구니, 앞치마, 책꽂이, 모니터 받침, 다용도박스 등 새로운 물품을 제작해 판매하거나 배부해 자원 절약과 환경오염을 예방한다.

폐품에서 새로운 생활용품으로 만들어진 제품들은 매월 넷째 토요일마다 안산문화광장에서 개최되는 재활용 나눔장터와 선부동 재활용판매장에서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며 자원봉사자, 복지시설에는 무상으로 제공한다.

또한 일자리 참여자들이 재봉과 목공 기술 등을 배우며 재활용품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일조하고 있다.

재봉반에서 7년째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김선옥 씨(본오동)는 “행복복지센터에 걸려 있는 모집공고를 보고 참여하게 됐다. 처음엔 동료에게 재봉기술을 배워가며 일하다 양장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섬유업체에서 기부 받는 원단은 샘플용으로 새것이나 마찬가지로 버려지기 전에 이곳에서 노트북파우치나 앞치마 등 새로운 제품으로 재탄생한다.”며 “보람 있는 일에 자부심을 느낀다.”라고 말하면서 웃었다.

시 관계자는 “폐품이 가치 있는 생활용품으로 재탄생해 활용되는 과정에 시민들의 관심과 만족도가 높다”며 “신제품만 고집하지 않고 재활용품에 대한 친근한 인식 변화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 문의 : 자원순환과(031-481-3537) / 신선영 명예기자_woghkah@hanmail.net



정크디자인센터 재봉반에서 만든 제품들

목공반 참여자들이 폐가구에서 활용 가능한 목재를 분리하는 장면



제2회 대한민국 일자리정책 박람회, 스마트시티 안산이 주목받다!

안산시 부스, 청년큐브 입주 청년기업 ‘(주)나무엔’ · ‘테솔로’ · ‘디스이즈잇’ 참가

미래 ‘일자리’ 나누고자 지방자치단체 83곳이 한 자리에!”

대한민국 뉴스부터 각종 선거까지 항상 비중 있게 다뤄지는 ‘일자리’ 문제는 남녀노소와 세대를 막론하는 모두의 관심사가 되었다. 항상 ‘어렵다’고 언급되는 취업문제는 어느 한 기관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83곳(광역 17, 기초 66), 정부중앙부처 · 공공 ·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 32곳, 민간기업 15곳이 한 자리에 모였다.

3월 21일부터 23일까지 서울 코엑스 D홀에서 ‘4차 산업 혁명과 미래일자리’라는 주제로 제2회 대한민국 지방정부 일자리정책 박람회가 열렸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와 한국일보가 주최하고 고용노동부 · 산업통상자원부 ·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정부중앙부처와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전국 시장 · 군수 · 구청장협의회가 함께 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이번 박람회는 지방자치단체들이 한 자리에 모여 일자리 창출 사례를 공유하고, 창의적인 일자리 창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 박람회에는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활용한 일자리정책을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콘텐츠진흥원 · 한국정보화진흥원 · 한국문화정보원 등이 참가해 눈길을 끌었다.

3일 간 진행한 박람회는 지방정부 우수사례관, 공공기관 채용관, 6차 산업관, 스마트시티 특별관, 미래 생생체험관으로 구성된 총 5개 주제관이 배치되어 참가자 개인 관심사에 따른 참여를 이끌었다. 또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 사례발표 및 시상식, 기업 및 공공기관 채용설명회, 비즈니스 매칭상담회, 정책 컨퍼런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가한 토론회 및 강연, 토크콘서트 등이 이어져 참가자들이 경험하

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배치되어 있었다.

3월 21일 박람회 개막식에는 일반 참가자는 물론 이 행사를 주최한 이목희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장과 이준희 한국일보 사장,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정병국 국회4차산업특위 위원장,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성장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등 많은 인사가 참석했다.

이목희 부위원장은 “미래의 ‘일’을 위한 논의의 장으로서 이번 박람회를 개최한 것”이라며, “박람회가 지자체, 기관, 기업이 함께 모여 각각의 사례를 공유하고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재갑 장관은 “고용노동부는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특히 주목하고 있는 것이 지역일자리 사업이다. 지역이 창의성과 재량을 발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지금까지 이런 박람회는 없었다. 이곳은 박람회장인가 축제장인가!

‘일자리’ ‘정부’ ‘공공’ 등 무거워 보이는 단어들이 가득 나열된 박람회는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 공공기관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시도로 특색 있는 볼거리와 축제 분위기를 제공했다.

200여 개의 부스 중 단연 눈에 띄는 곳이 안산시 부스였다. ‘스마트시티 안산, 청년창작부스’를 제목으로 내세운 안산시 부스는 청년 창업 인큐베이팅 사업 일환인 청년큐브에 입주한 청년창업기업 세 팀이 운영했다.

3D프린팅으로 제품을 개발 · 제작하고 교육도 하는 (주)

나무엔, 영단어를 암기할 수 있는 ‘누보 펜’을 개발한 테솔로(TESOLLO), 예술과 디지털 기술이 결합된 뮤지컬 공연을 하는 공연콘텐츠개발기업 디스이즈잇, 이렇게 세 팀의 청년기업이 박람회에 참여한 참가자들 앞에 선보였다.

부스에서 참가자들은 (주)나무엔의 각종 3D프린팅 제품들을 관람하며 기술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고, 테솔로가 개발한 ‘누보 펜’을 직접 체험해 보기도 했다. 특히 디스이즈잇의 특수 재질 의상과 퍼포먼스는 참가자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테솔로를 함께 운영하고 있는 관계자는 안산에서 청년창업을 한 소감을 묻는 질문에 “2년 전 창업했고 작년에 청년큐브 초지캠프에 입주했는데 시에서 지원이 잘되고 있다”며 “특히 창업초기 공간 구하기가 어려운데 입주공간을 마련해 준 것이 매우 큰 지원이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주)나무엔 이지혜 대표는 “작년 2월 창업하면서 청년큐브 초지캠프에 입주했다. 처음에는 안산에서 창업할 생각을 안했는데 준비하다보니 좋은 조건이 많더라”며 “인력, 공간 지원 등 시에서 지원을 잘해줘 요즘은 주변에 추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박람회 부스를 운영한 안산시 일자리정책과 관계자는 “안산시는 콘텐츠와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창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기업을 지원하고 성장을 돕기 위해 청년큐브(한양캠프, 예대캠프, Cinelab안산) 세 곳을 운영하고 있다”며 “꿈과 도전정신을 가진 청년들이 창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안산시는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테스토닉 강옥남 대표이사

미세먼지 차단 · 쾌적한 환경,
‘클린매트’가 책임진다!

(주)테스토닉 강옥남 대표이사

안산시 역사와 한 길을 걷고 있는 안산 스마트허브(반월국가산업단지)는 안산 시민들의 일터이자 안산시와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이기도 하다.

하지만 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제조업의 성장둔화와 경쟁력 약화, 기반시설 낙후로 인한 생산성 저하, 입주기업의 영세화 · 소기업화 등 어려움 속에서 혁신과 재생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녹색산업의 기초를 가지고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를 소재로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독창적인 아이디어의 새로운 제품을 선보여 특허 인증은 물론 다양한 곳에서 수상하는 등 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기업이 있다. 오염물질을 흡입해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혁신적 기술력을 바탕으로 ‘에어맥스 클린매트’를 개발한 (주)테스토닉의 강옥남 대표(사진)를 만났다.

Q (주)테스토닉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90년대 PCB 검사하는 사업을 했었다. IMF 직전에 설비를 늘렸다가 IMF가 오고 막대한 손해와 거래처 부도 등의 여파로 모든 것을 정리했다. 당시 주로 반도체 업체들과 거래했었는데 거래처에 드나들면서 먼지 등 오염물질 제거를 위한 스티커형 발판에 눈길이 갔다.

반도체업체의 특성상 오염물질 유입을 막기 위해 무언가가 필요한데 스티커형 발판은 계속 관리해줘야 되고 불편해보였다. 이것을 자동으로 처리해준다면 편하겠다는 고민에서 아이디어를 내고 개발에 들어갔다. 물론 실패도 하고 쉽지 않았다.

그러다 2012년에 현재 법인을 설립했다. 삼성전자 광주사업부에서 6개월 테스트를 거쳐 첫 납품을 하고 우리 제품을 설치했다. 그 이후 삼성 해외법인에도 알려져서 20여개국의 삼성 법인에 설치했고, LG, SK하이닉스 등 대기업에 납품했다.

4년여 전쯤부터는 발전소에도 납품하기 시작했다. 반도체 및 발전소 현장과 설비에는 미세한 오염물질도 침투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우리 제품이 잘 쓰이고 있다. 전국의 발전소에 직접 찾아가기도 하고 구매 상담을 통해 현재 전체 발전소의 20~30% 정도에 우리 제품을 납품하고 있다.

Q 미세먼지가 이슈화됨에 따라 제품에 관심이 간다.

미세먼지가 워낙 큰 이슈이기 때문에 우리 제품이 조금씩 알려지고 있다. (주)테스토닉에서 개발한 에어맥스 제품들이 출입구에 설치되면 실내에 유입되는 각종 세균, 미세먼지, 유해물질을 미리 차단하여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 있다. 최근 백화점에서도 연락이 왔다. 백화점은 워낙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관심을 보이는 듯하다. 학교에 다니며 우리 제품을 홍보하고 있다. 학교 쪽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긴하지만 예산문제로 본격적인 설치가 되고 있지는 않다. 학교, 어린이집 등 미세먼지로부터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장소들에 우리 제품이 가능한 빨리 설치될 수 있었으면 한다.

Q 주요 생산 제품인 클린매트에 대한 소개

실내에 먼지 등 오염물질이 유입되는 경로 중 신발을 통해 들어오는 것이 80% 이상이라고 한다. 최근 공기청정기를 많이 사용하는데 내부 공기를 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부로부터 오염물질이 들어오는 것 자체를 줄이는 것 역시 중요하다. 이것이 우리 제품의 핵심이다.

건물 입구나 지하철 게이트 등 바닥에 설치되는 클린매트는 매트 위를 걷기만 하면 자동으로 흡이나 미세먼지를 흡입하여 오염물질의 실내 유입을 차단한다. 건물 입구에 흡이나 빗물 제거를 위해 고무와 천으로 된 매트를 깔아 놓는 것과 같은 모습인데 기계화 되어 있어 마치 진공청소기처럼 이물질을 흡입하고 포집봉투에 모인 이물질을 따로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주)테스토닉에서 국내 최초 개발하고 특허 등록한 제품으로 순간 에어 흡입방식이다. 견고한 재질을 사용해 외부충격에도 강하고 장소와 상황에 맞게 사이즈를 맞춰 제작할 수 있다.

클린매트 외에도 기업체 내부 오염방지를 위한 에어샤워, 에어커튼 등도 개발 · 생산하고 있다. 현재 삼성전자, LG이노텍, 현대모비스, 제일제당, SK하이닉스 등 여러 대기업에 우리 제품이 설치되어 사용되고 있다.

Q (주)테스토닉이 성공적인 기업운동을 해 올 수 있었던 특별한 가치나 비전이 있는지?

우리산업을 이끄는
안산스마트허브⑦

국립고궁박물관에 설치된 ‘에어맥스 클린매트’

지속적인 R&D(연구개발)에 힘쓰고 있다. 그 과정에서 기술 특허는 물론 2015년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 금상, 2017년 하이서울 우수 상품브랜드 어워드 인증 등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작년에는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2018년 미래창조경영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지속적인 연구개발로 제품을 업그레이드하면서 특허도 내고 최상의 제품 개발과 생산을 위해 노력한다. 이 분야에 있어 (주)테스토닉이 선두주자이지만 벌써 유사 제품이 외부에서 나오고 있다. 타 기업의 제품과 차별화를 위해 적극적인 연구개발과 AS 및 유지보수 시스템 업그레이드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올해 1월에는 미국에 다녀왔다. 세계 최대 규모의 가전 · IT 관련 전시회인 CES 라스베이거스 전시회(Consumer Electronics Show in Las Vegas)에 참가해 ‘에어맥스 클린매트’ 기술을 선보였다. 미국에 에이전트를 두고 수출도 조금씩 하고 있다.

Q 안산시민들에게 한 말씀

(주)테스토닉이 안산시에 소재하는 기업체인 만큼 안산시, 안산시민과 함께 하고 싶다. 그 시작으로 안산시청, 구청, 보건소 등 공공시설건물에 안산 시민들이 건강을 위해 ‘클린매트’를 설치하면 좋겠다. 안산 시민들이 좋아할 것이라고 본다. 또한 미세먼지로부터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어린이집과 학교들에도 이 클린매트를 설치해 사용된다면 좋을텐데 하는 마음이다. 가정용 클린매트도 개발 중이다. 공기청정기를 집에 놓는 것처럼 가정 현관에 놓을 수 있게 가격대나 크기 등을 조절해서 가정용을 출시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중이다. 안산 시민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문의 : (주)테스토닉 (031-432-4380)
황정욱 명예기자_loosedom@hanmail.net



세브란스 심장혈관병원에 설치된 ‘에어맥스 클린매트’



안산문화광장에서 2018안산국제거리극축제가 한창이다.(2018년 행사 사진)

역대 최대
국가 참여
글로벌 축제

환경을
화두로 한
거리예술 작품

함께 하는
안전한
축제

오는 5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안산문화광장에서 열리는 안산국제거리극축제가 '아시아 거리예술의 메카'로서 비전으로 삼아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필(必)환경 + 안전 + 축제'라는 목표로 모두가 안전한 친환경 축제의 청사진을 밝혔다. 거리와 광장을 무대 삼아 도시민의 삶의 이야기를 예술로 풀어내는 우리나라 대표 거리예술축제인 안산국제거리극축제는 예술 뿐 아니라 친환경, 다문화, 소통과 화합 등 축제의 도시 안산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화두를 포용할 예정이다.

거리예술로 아시아의 중심을 꿈꾼다

말레이시아·캄보디아 등 아시아 작품 수 증가, 역대 최대 국가 참여

올해 축제는 '아시아 거리예술의 메카'로서 발돋움 하기 위한 의미 있는 시도를 했다. 말레이시아·캄보디아·인도 등 아시아 공연 작품 수를 늘리고 유럽의 정통 거리극과 아시아의 역동적이고 새로운 공연을 적절히 배치해 축제의 차별성과 정체성을 드러냈다.

17개 국가의 참여로 역대 최대 국가수를 기록하였으며, 아시아 작품수도 8개팀으로 최대 참여이다. 그만큼 전세계의 다양한 거리공연을 만나볼 수 있을 예정이다.

공식참가작에 초청된 페어 서커스(Phare Circus)의 <쏘카(Sokha)>는 캄보디아의 전후 현대사를 다룬 컨템포러리 서커스 공연으로 아시아 서커스의 진수를 만날 수 있을 예정이다.

윈드리버프로덕션(WindRiver Production)의 <살의 여정(Moved by Padi)>도 아시아의 중요한 쌀문화를 주제로 한 퍼포먼스를 무용 작품으로 보여준다. 또한 광대의 도시 프로그램에는 인크레더블 말라캄(Incredible Mallakhamb)의 <말라캄, 인디안 폴 쇼(Mallakhamb)>가 초청되었다. 인

도의 전통 스포츠 중 하나인 말라캄은 나무기둥을 사용하는 기예로 예술적 순간을 선사할 것이다.

그 외에도 다양한 아시아 작품들이 준비되어 거리예술을 통해 동시대를 살아가는 아시아인들의 삶의 방식을 마주하고 고민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안산국제거리극축제는 올해를 기점으로 아시아 거리예술의 견고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안산이 거리예술로 아시아의 중심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행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 공식참가작_페어서커스, <쏘카>



△ 광대의도시_인크레더블 말라캄, <말라캄, 인디안폴>



예술로 포용하고 축제로 함께 하다

지역·다문화 단체와 함께 하는 개막 퍼레이드와 시민이 참여하는 초대형 퍼포먼스 폐막작

‘다양한 문화를 포용하고 소통하는 축제’, ‘시민과 함께 참여하는 축제’는 2019안산국제거리극축제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목표다. 축제의 중요한 이벤트인 개폐막 프로그램에서 거리예술가와 지역 문화예술단체, 다문화단체들이 어울려 개막 퍼레이드를 선사한다. 세계 각국의 다양한 예술 문화를 만나볼 수 있는 퍼레이드에 이어 안산문화재단의 안녕오케스



△ 폐막작<NUUN(눈)>

트라, 시민오케스트라, 안산시립합창단, 416합창단, 안산소년합창단 등 300여명의 대규모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화려한 축제의 막이 오른다.

폐막작에는 올해로 40주년을 맞이한 스페인의 공연예술단체인 라푸라델바우스가 <NUUN(눈)>이라는 신작을 공개한다. 인상적인 퍼포먼스와 창조적 시도로 예술성과 화제성으로 인정받는 라푸라델바우는 우주의 창조 신화를 주제로 스펙타클한 초대형 야외 퍼포먼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안산 시민 90여 명이 사전부터 참여하여 거대한 인형과 에어리얼 퍼포먼스 등 공연의 중요한 장면에서 함께 등장한다.

대한민국 다문화중심도시라는 ‘안산’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을 축제의 독보적인 정체성으로 흡수하고, 예술이라는 매개를 통해 공존과 포용을 하고자 하는 축제의 의지가 담겨 있다.

거리예술로 환경에 대한 목소리를 듣다

양쿠라 작가의 해양쓰레기, 비주얼아트연구소의 지구 메시지

환경을 생각하자는 ‘친환경’를 넘어 인류 생존을 위해서는 반드시 선택해야하는 ‘필(必)환경’의 시대이다. 축제 또한 더 이상 소비하는 주체가 아닌 지속가능한 미래의 동력으로 탈바꿈 해야 한다.

안산국제거리극축제의 제작지원 프로그램인 ‘안산리서치’의 작품 중 하나인 양쿠라 작가의 <침묵의 전달자>는 해양쓰레기의 도심 상륙을 콘셉트로 한다. 몬스터 형태의 쓰레기가 관객 사이를 활보하며 일상 속에서 쓰레기에 대한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대부도에 작업실을 가지고 있는 양쿠라 작가는 해양 생태계에 대해 다양한 관점으로 작업을 해왔다. 디

지털을 아날로그적 감성으로 재해석하는 예술창작단체 비주얼아트연구소의 <양심의 우산>은 ‘환경보호’라는 다소 무거운 주제를 샌드아트를 통해 환상적이고 재미있게 풀어낸다. 관객이 스팀펍크 자전거를 따라 함께 이동하고 관람하면서 “지구가 온몸으로 이야기하는 메시지”를 듣게 될 것이다.



△ 안산리서치_양쿠라,<침묵의 전달자>



△ 공식참가작_비주얼아트연구소,<양심의 우산>

친환경 사회적 기업과의 협약으로 현수막 업사이클링 제품 제작

축제 기간 동안 플라스틱 줄이기 분리수거 캠페인

안산국제거리극축제는 환경을 위해 생활 속에서 배출하는 쓰레기를 최소화하고 최대한 재활용하자는 제로 웨이스트(Zero waste) 운동에 동참한다.

특히 생수병 등 축제에서 많이 소비되는 플라스틱병을 최소화하고, 축제를 찾는 관객들에게도 일회용품 및 플라스틱 줄이기 메시지를 전한다. 뿐만 아니라 축제 현장에서는 분리수거를 위한 설치 공간을 만들어 관객들에게 분리수거의 필요성과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또한 축제 기간 중 제작되는 옥외 현수막을 업사이클링(up-cycling)하여 내년도 축제를 위한 친환경 기념품으로 제작한다. 버려지는 자원을 재활용하는 업사이클링 전문 업

체이자 친환경 사회적 기업과의 협약을 통해 협업 한다.

다양하게 제작된 현수막 천으로 새롭게 만들어질 에코백 제품은 현장을 찾은 축제 관람객들에게 먼저 신청 받아 배포될 예정이다.



“Welcome to the Street A”라는 슬로건 아래 예술적 포용과 문화다양성을 주제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2019안산국제거리극축제는 오는 5월 4일(토) 축제의 막을 올린다. 5월 1일(수)에는 선부광장, 5월 2일에는 상록수역 앞 광장으로 찾아가 미리 축제를 만나보는 프리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축제 및 공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안산국제거리극축제 홈페이지(www.ansanfest.com, ☎1544-0402)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야생화의 천국'이라는 풍도의 전경

풍도, 봄이면 꼭 가야 할 서해의 꽃섬 노란 복수초, 새하얀 풍도 바람꽃... 야생화의 천국

올해도 어김없이 봄과 함께 '풍요로운 꽃섬' 풍도에 야생화가 활짝 폈다. 노란 복수초와 새하얀 풍도바람꽃 등 갖가지 야생화는 저마다의 빛깔로 꽃망울을 터뜨리며 섬을 찾는 외지인을 반갑게 맞고 있다. 겨울을 이겨내고 가장 먼저 봄을 알리는 복수초 등 야생화가 피는 풍도. 하루쯤 바쁜 일상을 내려놓고形形色색의 다양한 야생화를 감상하며 휴식을 즐겨 보는 건 어떨까.

알록달록 펼쳐진 야생화 군락지...봄기운 '물씬'

대부도에서 남서쪽으로 24km 떨어진 풍도는 현재 봄기운이 가득하다. 마을 뒤에 있는 177m 높이의 후망산을 중심으로 곳곳에서 야생화가 만개하고 있어서다.

매년 3~4월이면 풍도에는 야생화를 보러 오는 외지인의 발걸음이 잦아진다. 야생화 개화와 함께 관광 시즌이 시작되면 주말에는 하루 평균 500여 명의 관광객이 섬을 찾아 풍도 전체가 활기를 띤다.

야생화는 후망산 일대에서 쉽게 볼 수 있다. 산중턱에는 비밀정원으로 불리는 야생화 군락지가 조성돼 관광객들에게 신비로움과 아름다움을 선사한다. 마을에서 난 길을 따라 산을 오르는 오솔길 주변에는 땅을 뚫고 나와 낙엽에 몸을 숨긴 야생화가 흩뿌려져 있다.

풍도의 야생화는 2월부터 시작된다. 복수초가 봄을 알리듯 가장 먼저 자태를 뽐내는 데 이어 풍도에서만 관찰 가능

한 풍도바람꽃이 뒤를 잇는다. 이후 4월 말까지 노루귀와 평의바람꽃, 산자고, 현호색, 풍도대극 등 나머지 야생화도 잇따라 자태를 드러낸다.

야생화의 천국으로 불리는 풍도는 야생화 자생지가 넓고 개체수가 많은 점도 특별하지만, 풍도바람꽃과 풍도대극을 오직 풍도에서만 볼 수 있다는 점도 큰 매력이다. 과거 변산바람꽃으로 알려지기도 했던 풍도바람꽃은 꽃잎이 더 크고 모양이 다른 것으로 확인되면서 2011년 1월 풍도바람꽃이라는 이름이 정식으로 붙여졌다.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풍도는 적은 사람의 간섭과 해양성 기후의 영향으로 춥지 않은 날씨, 적당한 강수량 등 여러 요인으로 야생화가 군락을 이루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섬 곳곳에 피어난 야생화는 반드시 눈으로만 관찰해야 한다. 풍도 내에서는 야생화 보호를 위해 섬 전역에서 야생화와 산나물 채취가 금지 돼 있으니 주의가 요구된다.

풍도 한 바퀴 돌며 숨은 매력에 '흠뻑'

풍도 주민들이 추천하는 탐방 코스를 따라 걷는 것도 풍도를 제대로 즐기는 또 하나의 방법이다.

마을의 역사와 생태, 문화를 느낄 수 있는 마을 둘레길 코스는 약 90분 걸린다. 선착장을 시작으로 풍도발전소를 지나 마을뒷길~은행나무~동무재길~마을안길~마을복지회관~대남초교 분교를 걷는 구간이다. 마을 뒤로 조성된 길

을 따라 걸으며 한 눈에 마을전경과 서해, 그리고 육도를 담을 수 있다. 또 다른 코스는 채석장-북배 코스로, 2시간30분 정도 소요된다. 풍도의 대표 명소이자 전망 포인트인 북배와 채석장을 즐길 수 있는 코스다. 선착장을 시작으로 해안산책로~어촌체험마을~청염곶해변~후망산등대~갈대밭길~북배와 북배탄목을 따라 조성됐다.

해안산책로에는 풍도 주민 60세대의 생활 이야기가 글과 그림으로 시각화 돼 있어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한다. 2013년 경기문화재단의 활생(活生)문화 공명프로젝트로 추진된 '아름다운 섬 풍도를 걷다'라는 이름의 작품은 풍도 주민들의 생활상을 보존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마련됐다.

출출한 배는 봄의 기운이 듬뿍 담긴 사생이(전호) 나물과 달래 무침, 두릅, 엄나무순, 도라지 등 풍도에서 자라는 산나물과 꽃게, 해초세무가사리 등 해산물로 채울 수 있다. 또한 풍도 주민들이 지난해 지역역량 강화 사업을 통해 개발한 칩과 배도라지 청 등도 맛보길 권한다.

풍도행 정기 여객선은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에서 하루에 한 번 운항한다. 오전 9시30분 출항하는 배는 오전 10시30분 대부도 방아머리항 여객선터미널을 거쳐 정오쯤 풍도에 도착한다. 계절, 홀·짝수일, 바다 상황에 따라 바뀌기 때문에 미리 선사의 운항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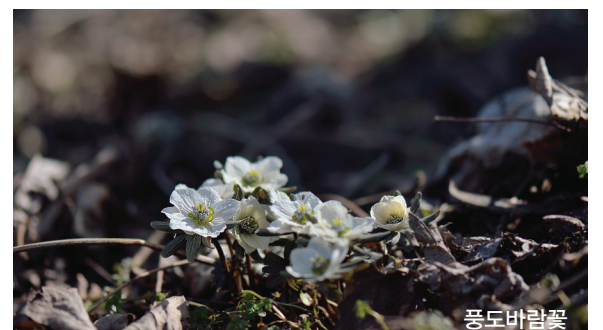
풍도 관광에 대해 더욱 자세한 내용은 풍도 인터넷 사이트(<http://pungdo.co.kr>)에서 볼 수 있다.



복수초



풍도대극



풍도바람꽃



생생도시 안산 방송됐다!

안산시 학생 기자단 활동 개시

KBS 뉴스 (2월 26일)
“꿈꾸던 방송 제작 교육 받았어요”
“학생 기자단” 활동개시”

"스마트 산업단지 성공 모델 만들 것"

OBS 뉴스 (3월 7일)
안산시 “스마트 산단 성공 모델 만들겠다”

KBS 6시 내고향 (3월 19일)
발길따라 고향기행
〈안산시편〉

YTN 뉴스 외 (3월 19일)
야생화 천국 풍도
섬 주민들도 봄

안산아재와 유튜브로 소통해요~‘생생 스튜디오’오픈! 첫방송 모모랜드 연우·개그맨 이문재 출연



안산시 공식 유튜브 방송 ‘생생 스튜디오’가 3월 15일 시민과 함께 소통의 문을 활짝 열었다. 이 날 오픈 기념 생방송은 개그맨 ‘이문재’가 진행하고 안산시 홍보대사로 위촉된 인기 걸그룹 모모랜드의 ‘연우’가 특별 출연해 큰 관심을 모았다.

이 날 안산시 홍보대사로 위촉돼 유튜브 방송에 참여한 모모랜드 연우는 “안산을 자주 찾아 시민과 함께 소통하며, 안산을 널리 알리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방송에 참여한 관계자는 “시민들과 SNS로 소통하고 싶어서 유튜브 라이브에 출연하게 됐다”며 “앞으로 이런 자리를 통해 시민에게 더 친근히 다가가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최근 유튜브가 대중으로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안산시는 기존에 운영하던 안산시 공식 유튜브 방송을 대폭 재단장해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생생 스튜디오를 마련하게 됐다”며, “시 관계자와 시민이 소통하는 ‘안산아재’와 이슈에 따라 안산의 인물들이 참여하는 ‘생생 안산, 생생 톡’ 등의 프로그램으로 시민과 소통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구독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또한, 안산시는 시민이 시정소식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안산시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를 개설하는 한편 다양한 방송채널(네이버TV, 카카오TV, 네이버 블로그TV)을 활용해, 시민과의 소통행정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한편, 모모랜드는 2016년 데뷔한 9인조 인기 걸그룹으로 〈뽀뽀〉, 〈BAAM〉 등 다양한 인기곡을 보유하고 있다. 홍보대사 연우는 오는 4월 7일 방영될 다큐멘터리 ‘MBC 스페셜’ 〈서해의 꽃섬, 풍도〉 내레이션에 참여했다.

정보 소외 없는 안산...일상에서 만나는 생생한 생활정보 버스정류장 공간을 활용해 디지털 사이지니 설치



안산시는 시민 다수가 이용하는 버스정류장에 디지털 사이니지(Digital Signage) 운영한다. 디지털 사이니지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포스터나 문자 등 다양한 정보를 디스플레이에 표시하고, 네트워크로 원격 관리하는 광고판이다.

디지털 사이니지는 그 동안 많은 시민이 이용하지만 마땅한 홍보수단이 없었던 버스 정류장을 적극 활용하여 일상 속에서 다양한 시정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설치 됐다. 사이니지는 중앙 센트럴푸르지오, 고잔 은혜와진리교회, 성포주공4단지 버스 정류장 3개소에 설치됐으며, 오전 5시부터 오후 11시 30분까지 운영, 각종 시정·생활·교육 정보와 안전, 날씨, 카드뉴스 등 공공콘텐츠를 송출할 예정이다.

주민 A 씨는 “겨울에 설치됐던 온열의자 덕분에 추운 날씨에도 따뜻함을 느끼며 버스를 기다릴 수 있어 좋았는데, 이번에 설치된 전광판(사이니지)은 다양한 정보를 얻으며 심심치 않게 버스를 기다릴 수 있어 더욱 좋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 B 씨는 “버스를 기다리며 핸드폰을 보면 웹툰이나 연예기사 등 내가 관심을 갖는 것만을 보게 됐는데, 사이니지를 통해 평소에 접하지 못했던 시정소식과 캠페인을 볼 수 있어 좋다”며, “평소에 관심있게 살펴 보며 내게 필요한 정보가 있는지 확인해 봐야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복지혜택, 관광안내와 월중 주요행사 등 사이니지에 최적화된 이미지 제작과 정기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시민이 많은 정보를 받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각오와 함께 “시정소식지와 연계를 통해 생활수기를 게재하는 등 사이니지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안산시청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OPEN EVENT

안산플친이 왔나 봄~

안산시청과 플러스친구 맺으면 푸짐한 선물이 팍팍~

이벤트 기간
2019.02.27(수) ~ 03.31(일)

당첨자 발표
2019.04.03(수)

이벤트 경품
[227명]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Tall

1. 안산시청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추가

2. 나는 안산시의 친구가 되었다

Tip!
안산시청 플러스친구 추가 후 정성스러운 댓글까지 남기면 당첨확률 UP

안산시 시정소식지는 무료 구독이 가능하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구독·주소변경 신청

메일 ansannews@korea.kr
전화 031-481-2042

안산시 공식 방송채널

검색창에서

안산시 카카오TV

안산시 유튜브

안산시 네이버TV

안산시 네이버블로그TV

오픈스튜디오 프로젝트

‘옆집에 사는 예술가’(6)

예술가의 삶이 고스란히 담긴 생활공간이 활짝 열렸다. 경기문화재단이 경기지역 미술작가들의 작업을 보다 밀도 있게 소개해온 ‘옆집에 사는 예술가’가 지난해 안산에 더 잡은 작가들의 삶의 철학, 작품세계, 작업과정을 나누는 오픈스튜디오를 진행했다. 안산문화재단 공모로 선정된 열 두 작가의 작업실을 찾아 이들의 작품세계를 들여다본다.



대부도 쪽박섬과 메추리섬 사이 바닷가 마을에 자리한 양쿠라 작가의 작업실을 찾았다. 오래된 집에는 버려진 물건이나 이미지를 재해석해 작품을 만드는 작가의 소신이 오롯이

양쿠라 작가 : 예술은 환경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물 위에 떠다니는 부유물, 해양쓰레기를 예술로 풀다

담겼다. 작가는 해류를 따라 떠밀려온 해양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현실을 담은 영상물과 몬스터 외양을 한 작품을 보여주며 ‘예술이 환경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화두를 던진다.

양쿠라 작가는 해양에 떠밀려 다니는 쓰레기들을 주제로 한 설치예술 형태의 작업을 한다. 제주도가 고향인 작가는 바다에 대한 향수도 그렇지만 북한과 인접한 해안선에서 군 생활을 하면서 물 위를 떠다니며 오가는 것을 지켜보는 일상을 보냈다. “캠핑용 딸감을 구하다 빨간 배경에 선전 문구가 쓰여 있는 북한에서 온 나무 쓰레기를 보며 해상에서 발견되는 쓰레기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게 됐다.”는 작가는 동북아시아의 쓰레기 문제와 바다의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작품으로 말하고 싶었다고 했다.

동북아 해안선을 타고 쓰레기는 중국에서 한국으로, 또 우리의 쓰레기는 대마도와 일본 서해상으로, 일본의 쓰레기는 블라디보스토크나 하와이로 흘러간다. 해류를 따라 도미노처럼 쓰레기들이 연결되기 때문에 해양쓰레기는 한 국가에서 책임지고 개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작가는 ‘환경 문제를 고민하는 환경단체들과 예술가들이 조화를 이룬다면 정치적이고 국제적인 분쟁도 완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독일, 캄보디아, 일본, 아랍에미리트 등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해양쓰레기로 만든 거대한 몬스터 시리즈는 해괴망측하게 드러나는 무분별한 소비의 민낯을 들춰낸다. 중국에서 온

부표와 폐비닐, 폐목, 페트병 등으로 눈이 다섯 개 달린 몬스터를 만들고, 눈이 하나인 몬스터는 신의주 화장품공장 라벨, 김정은 선전 문구 등이 붙은 북한의 쓰레기로 제작했다. 눈알을 도르르 굴리며 눈꺼풀도 움직여가며 표정연기가 가능한 몬스터들이 환경에 대해 오싹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퍼포먼스를 한다.

‘새 물건들에 열광하며 손쉽게 사들이지만 금방 싫증내면서 쉽게 버리고, 이 쓰레기들이 다시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아이러니를 충격적인 모습의 몬스터에 투영시켰다. 이러한 예술방식을 통해 작가는 생태계와 환경에 대한 관심을 촉발하며 예술이라는 방식으로 환경 문제를 제시함과 동시에 해결책을 모색한다.

◇ 문의 : kura_yang@naver.com
신선영 명예기자_woghkah@hanmail.net



forgotten Messenger. hd vidoe.12m 37s 2017.

7인의 현대미술 작가와 1개팀의 다채로운 작품 전시 경기도미술관 교육 상설전시 ‘이야기 사이’



노석미 작가 ‘먹이는 간소하게’

백남준 ‘달에 사는 토끼’

TV모니터 안에는 둥근 달이 떠 있고, 나무로 만들어진 토끼는 화면 속에 있는 달을 바라본다. 사람들의 소원을 듣기만 했던 달 속의 토끼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걸까. 세계적인 미디어 아티스트 백남준의 작품 ‘달에 사는 토끼’에는 달과 TV라는 매개체를 통해 수많은 이야기를 끝없이 건네는 사람들의 근원적인 욕망이 담겨있다.

이야기를 주제로 다양한 재료와 기법을 활용한 흥미로운 작품들을 만날 수 있는 경기도미술관 ‘이야기 사이’ 교육 상설전시가 오는 8월 18일까지 열린다. 7인의 현대미술 작가와 1개팀의 다채로운 작품, 미디어 특별 체험 프로그램까지 만나볼 수 있다. 전시는 ‘책’, ‘자연’, ‘생활’, ‘환상’, ‘기술’, ‘꿈’을 주제로 작가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펼친다.

책을 모티브로 작업하는 강애란 작가는 책 사이즈의 투명한 오브제 안에 LED라이트를 장착해 빛을 발하는 책을 만든다. 이 디지털 책을 바라보며 관객들은 앞으로 마주하게 될 새로운 공간과 시간의 이야기를 상상해 볼 수 있다.

제주의 자연과 역사를 주제로 작업하는 강요배 작가는 자연 풍경에 담긴 감정들을 대형 회화작품으로 표현한다. 3m가 넘는 대형 캔버스에 일렁이는 파도는 바다의 소리와 촉각을 그대로 담아내며 관객들을 자연의 이야기 앞으로 불러낸다.

텃밭을 가꾸던 생활 속에서 일어난 소소한 이야기를 일러스트와 글로 표현한 노석미 작가의 작품에는 삶의 온기가 그대로 느껴진다. 작가의 신간 ‘먹이는 간소하게’에서 발췌한 그림과 글은 쉽고 편안하며, ‘나만의 레시피 만들기’ 체험도 즐길 수 있다.

이이남 작가는 길이 10m에 달하는 대형 영상작품 ‘신-몽유도원도’로 환상의 이야기를 전해준다. 조선 초기 대표작 ‘몽유도원도’를 작가 특유의 시선과 디지털 기술로 재해석한 이 작품은 무릉도원의 사계절을 8분40초 동안 영상으로 그려내며 환상의 세계를 눈앞에 펼친다.

젊은 미디어아트 그룹 ‘팀보이드’는 산업로봇을 활용한 퍼포먼스 영상 ‘로봇 인 더 미러’를 전시했다. 동물의 거울 실험을 바탕으로 기획된 이번 작품은 ‘로봇이 자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연극의 한 장면처럼 연출했다.

강익중 작가는 커다란 정사각형 캔버스에 ‘연결’이란 주제로 ‘달 향아리, 빨강과 파랑’을 그려 꿈을 이야기한다. 아랫부분과 윗부분을 각각 만들어 하나로 붙여 굽는 달 향아리의 제작 방식처럼 두 개 그림을 연결한 작품은 ‘너와 나, 남과 북, 세계를 잇고 싶다’는 작가의 희망을 보여준다. 한편 전시장에서는 ‘나, 너, 우리의 꿈’이라는 디지털 스프레이 가상체험 프로그램도 상시 운영돼, 관람객들이 대형스크린에 떠가는 구름과 달을 자유롭게 색칠해 보는 경험도 가능하다.

◇ 문의 : 경기도미술관(031-481-7000) / 송보림 명예기자_treehelper@gmail.com



안산그리너스FC

축구 '붐' 이어 간다... 장외 이벤트 등 홈경기 분위기 연출 노력



안산그리너스FC는 3월 3일 치른 '하나원큐 K리그2 2019 1라운드' 대전시티즌과의 홈 개막전 경기에 5천558명(유료 관중 5천176명)의 관중이 와스타디움을 방문하면서 축구 붐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경기장 밖에서는 슈팅이벤트, 신발양궁, 에어바운스, 슈팅존, 림보, 풋볼링 등 많은 이벤트가 있었고 관중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경품 이벤트(TV, 제습기, 온수매트 등)를 마련했다.

그리너스FC는 지난해 10월 임완섭 (48) 감독 선임을 기점으로 2019 시즌을 준비했다. 올해 1월 14일부터 2월 14일 동안에는 새롭게 구성된 팀 기량을 극대화한다는 각오로 터키 안탈리아에서 1차 전지훈련을 마치고 돌아왔다. 또 라커룸 등 경기장 시설을 새롭게 단장했는데, 구단을 상징하는

'에메랄드 그린' 색상을 통해 선수들이 하나로 뭉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했다.

선수단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리너스FC의 첫 시즌 엄청난 활약(리그 득점 2위)을 했던 우루과이 출신 라울 선수는 2018시즌 부상으로 인해 많은 경기에 참여하지 못하고 말레이시아 2부 리그의 클란탄으로 이적했다. 팀의 핵심 윙어였던 이건 선수도 성남FC로 이적했다. 주축 선수 몇 명을 내보낸 가운데 명실상부 '에이스' 장혁진 선수는 재계약을 통해 이번 시즌도 팀을 이끈다.

용병들도 새롭게 변화했다. 첫 번째 용병으로는 브라질 리그에서 활약(52경기 11골)한 브라질 공격수 빈치썬코를 영입했다. 빈치썬코는 K리그 최고의 용병이었던 말캉을 뛰어넘겠다고 다짐했다. 두 번째 용병으로는 빠른 스피드를 이용한 돌파력으로 중원을 휘젓고 다니는 브라질 미드필더 파우벨을 영입했다. 세 번째 용병으로는 U18 일본 청소년 대표 출신 마사를 영입했다.

국내 선수도 많이 영입됐다. K리그 베테랑 선수들인 김대열(MF)과 이준희(DF), 청소년 대표 출신 박성욱(MF)과 유청인(MF), 첫 프로무대를 밟는 신인 선수 신재민(FW), 박호승(MF), 김진욱(MF), 홍영기(DF), 장준수(DF), 하준호(GK), 정철(FW), 김경호(DF) 그리고 서현우(DF)를 영입했다. 그 밖에 영입한 선수는 방찬준(FW), 김진래(DF), 유지민(MF), 윤성호(DF), 황인재(GK), 이민규(DF)가 있다.

팬들은 지난 시즌 홈경기에서 강한 면모를 보여줬던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

◇ 문의 : 안산시시민프로축구단(031-480-2002)
인치광 명예기자_chee0806@naver.com

안산그리너스 FC 홈경기 일정					
03.03 13:00 (일) VS 대전	03.31 15:00 (일) VS 안양	04.06 15:00 (토) VS 부산	04.27 17:00 (토) VS 광주	05.01 19:30 (수) VS 전북	05.18 19:00 (토) VS 수원
05.27 19:30 (일) VS 부산	06.22 19:00 (토) VS 울산	06.29 19:00 (토) VS 서울	07.21 19:00 (일) VS 전남	07.27 20:00 (토) VS 부산	08.03 20:00 (토) VS 대전
08.12 20:00 (월) VS 안산	09.01 19:00 (일) VS 광주	09.15 19:00 (일) VS 안양	09.22 19:00 (일) VS 부산	10.05 15:00 (토) VS 서울	11.03 15:00 (일) VS 수원

양궁 '비엔에이-원'

다양한 연령대와 직업군으로 구성... “양궁은 집중력과 자세교정에 큰 도움”



안산시 실내 양궁장에서 단골손님들끼리 합심하여 만든 아마추어 양궁 팀 '비엔에이-원' (B&A-One, 대표 김대선)이 단기간에 큰 성과를 이루었다.

'비엔에이-원' 팀은 호기심에 실내 양궁장을 방문했다가 양궁의 매력에 빠져 단골이 되고, 단골손님들끼리 가볍게 인사를 나누다가 친해지면서 팀을 형성하게 되었다. '비엔에이-원'의 뜻은 안산의 실내 양궁장인 베어 어처리(Bear archery)의 이니셜 B와 안양에서 A-One 팀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재은(전 국가대표) 코치의 도움을 받게 되면서 연합의 의미를 담고 있다. '비엔에이-원'은 일면식 없는 사람들끼리 형성된 만큼 나이와 직업군 또한 다양하다. 나이는 10대에서 40대까지 있으며 직업은 초등학교생부터 변호사 사무장 등이 있다.

'비엔에이-원' 팀은 비록 작년 10월에 형성됐지만 빠르게 자리를 잡았다. 그러나 그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팀원인 임수환(27) 씨는 지난해 경험 삼아 나간 천안시장배 양궁대회에서 너무 큰 쓴맛을 봤다. 대부분의 출전 선수들이 360점 이내를 쏘는 경기에서 190점을 쏘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양궁을 그만두지 않고 실력을 쌓기 위해 노력했다. 3개월 동안 일주일에 4일 4시간씩 400발의 화살을 쏘는 피나는 노력을 했고, 작년 12월 서울페스타 실내 양궁대회에서 2등을 수상하는 영광을 얻었다. 그리고 지금은 오는 4월에 열릴 대한양궁협회 주관의 큰 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또 대학생이었던 그는 공부하는 시간을 쪼개어 양궁을 연습했는데 양궁을 하다 보니 집중력이 크게 향상되어 오히려 공부 효율이 좋아져 일거양득의 결과를 낳았다고 했다.

'비엔에이-원' 팀은 단체전으로 출전했던 인천협회장기 전국동호인대회에서 신생팀임에도 불구하고 출중한 실력으로 2등을 수상하였고 단체전 왕중왕전에 참여할 기회도 얻었다.

김대선 대표는 “양궁은 집중력 향상과 거북목 교정과 같은 자세 교정에도 큰 도움이 된다”며 “양궁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팀원 모집은 언제나 환영”이라고 말했고, “안산의 코오롱 프로 양궁팀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면 양궁의 활성화와 팀이 더 큰 성과를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아마추어 양궁대회는 10m, 30m 대회가 있으며 초보와 일반부로 나뉘고 실내 대회와 실외 대회가 있다. 실내 양궁장은 관리자의 통제 하에 10발의 안전교육을 받고 30발에 1만 원으로 즐길 수 있다.

◇ 문의 : '비엔에이-원' 팀 김대선 대표(010-2648-7039)
인치광 명예기자_chee0806@naver.com



‘늘 푸르른(常祿)’ 상록구에는 일동, 이동, 사동, 사이동, 해양동, 본오1·2·3동, 부곡동, 월피동, 성포동, 반월동, 안산동 등 총 13개 동이 있다. 파릇파릇 우리동네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반월동

빛하나봉사회, 전통된장고추장 담가 어려운 이웃 후원



불우이웃돕기 기금 조성을 위한 빛하나봉사회 전통된장 담그기 행사가 3월 6일 상록구 사동 상록수된장마을에서 진행됐다.

빛하나봉사회는 올해까지 4년 동안 차상위계층 가정에 생필품을 전달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김영석 대표의 후원으로 이뤄졌다.

이날 담근 된장은 모두 12말의 재료가 투입됐고 앞으로 50일 후에는 가장 먼저 간장이 만들어진다. 된장이 뜨면 간장과 된장을 분리하며, 된장은 오는 10월부터 11월 사이에 완성될

예정이다. 고추장은 고춧가루와 쌀 조청 한말, 엿기름 소량으로 9말의 재료가 들어가 전통방식발효로 자연 숙성시켜 가을이면 맛있는 고추장을 맛볼 수 있는데, 약 3개월이 걸린다. 마지막으로 이날 담근 간장은 1리터 페트병으로, 된장 및 고추장은 모두 플라스틱 통으로 각각 130개부터 150여개까지 만들어진다. 간장은 1리터 1만 원, 된장은 1Kg 1만5천 원, 고추장은 1Kg 2만 원에 판매한다. 재료비는 빛하나봉사회 회비로 충당했으며, 완성된 간장, 된장, 고추장은 판매해 그 이익금을 매달 불우한 이웃을 돕는데 사용한다.

박보성 회장은 “나누는 기쁨은 경험해 보지 않으면 모른다. 회원들의 정성이 하나하나 보태지고 쌓여져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다시 탄생하고 있다. 특히 장 담그기 봉사는 좋은 재료를 사 먹을 수 있어서 좋고 그 수익금으로 차상위계층을 도울 수 있어 더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김영석 대표는 “메주는 국산 콩과 보리쌀을 찌서 만든 보리메주를 사용하기 때문에 숙성되면 ‘상록된장마을’에서만 맛볼 수 있는 맛있는 된장을 먹을 수 있다”고 자랑했다.

한편, 상록수된장마을에서는 전통 저 염장 아카데미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으며, 빛하나봉사회도 회원을 모집하고 있다.

◇ 문의: 상록수된장마을(010-8494-2211), 빛하나봉사회(010-8941-1899)
김효경 명예기자_poet-hk@hanmail.net

사이동

‘똑똑(Knock knock)’ 죽 만들어 이웃사랑 실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매월 두 번, ‘한우한돈’ 정육점에서 후원
상록구 사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월 30일부터 매월 2회씩 지역 내 독거노인, 부부노인가구, 장애인가구, 퇴원한 환자가구에게 죽을 쑤서 전달하는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식재료를 구입하고 음식을 조리하기 힘든 가구를 선정해 자원봉사자들이 호박죽, 고막죽, 소고기죽, 닭죽 등 매회 다양한 죽을 만들어 직접 방문, 안부를 묻고 건강도 챙기고 있다.

‘똑똑(knock knock)’ 죽 나눔 행사는 사이동 소재 ‘한우한돈’ 정육점의 질 좋은 소고기와 닭고기 등을 후원 받아 사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직접 재료를 손질해 죽을 쑤서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대상자들의 안부를 확인하는 과정까지 포함돼 있다.

이광석 위원장은 “이번 똑똑 죽 나눔행사는 물질적인 후원뿐만 아니라 추운 겨울철 이웃을 살피고 사랑과 정을 함께 나누자는 취지에서 마련됐으며, 앞으로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들에게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조신애 봉사자는 “죽을 만들어서 이웃에게 나눠줄 때 보람이 크다”며 “어르신들이 죽을 받아 들고 환하게 행복한 미소를 지을 때 내 마음도 덩달아 환해지고 따뜻해져서 봉사하는 일이 즐겁다” 말했다. 이날 죽 나눔 행사에는 5명의 봉사자들이 참여해, 총 35명에게 죽을 만들어 전달했다.

김효경 명예기자_poet-hk@hanmail.net

부곡동

부곡종합사회복지관, 주민 공청회 진행, 아동이 안전한 생활환경 갖춘 마을 만들어요

부곡종합사회복지관은 3월 14일 ‘아동의 안전한 생활환경이 보장되는 마을 만들기’를 위한 주민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해피드림부곡과 공동연구사업인 ‘부곡동 내 아동 생활환경에 대한 연구조사’ 결과를 지역주민 및 연계 단체와 공유하고, 이후 계획을 함께 논의해보고자 마련됐다.

공청회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 “알고 있었던 내용이었지만 공청회를 통해 다시 한 번 아이들 안전이 시급함을 느낄 수 있었고, 마을 안에서 주민들이 다 함께 움직여야만 변화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자리가 자주 마련되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공청회 이후 주민 워크숍 및 교육을 시작으로 부곡동 내 아동 안전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주체적인 활동들이 이어질 전망이다.

◇ 문의: 부곡종합사회복지관(031-417-3677)



많은 인원이 참석하여 연구조사결과를 경청하고 있다.



단원구

조선시대 대표 화가 단원 김홍도를 기리는 단원구에는 와동, 고잔동, 중앙동, 호수동, 원곡동, 백운동, 신길동, 초지동, 선부1·2·3동, 대부동 등 총 12개 동이 있다. 따뜻한 이웃 우리동네의 소식이 궁금하다.

중앙동

주민자치센터 탁구교실 ‘인기 짝’, “다이어트와 치매예방에도 좋아요”



중앙동 주민센터 탁구교실 단체사진

“핑퐁 핑퐁~” 중앙동 주민자치센터 4층 다목적 강당,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경쾌한 소리가 들리며 주민들이 모여든다. 다이어트와 치매 예방에 좋은 탁구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이다.

매주 화요일 오전과 오후 각각 2시간씩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매달 셋째 주 월요일에 접수를 받는다. 정회원이 30명을 훌쩍 넘기 때문에 아침 일찍부터 줄을 서서 접수하지

않으면 참여할 수 없다. 길게 줄서 접수하는 진풍경이 연출된다. 탁구는 저렴한 비용으로 몸에 무리를 주지 않아 나이에 관계없이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운동이다. 실내에서 하는 운동이라 계절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최적의 환경에서 전신 운동을 할 수 있다. 때문에 치매예방에도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다이어트에도 탁월하다.

함진식 탁구교실 코치는 “2년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

고,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아 가르치는 보람이 크다”며 “탁구는 순발력과 집중력을 요구하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특히 나이 드신 어른들이 탁구로 활력을 찾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기에 좋다”고 말했다.

이곳에서 탁구를 배우고 있는 최광자 씨는 “일단 탁구를 치는 것 자체가 재미있고 지루하지 않아 1시간 이상 치다 보니 3개월 만에 8kg이 빠졌다”면서 “탁구에 광팬이 됐다”고 즐거워했다. 또한 서기섭(78) 씨는 “탁구는 공의 방향과 회전 속도를 가능하는 두뇌회전 운동으로 빠르고 작은 공을 계속 보면서 치기 때문에 눈 운동에도 좋고 치매예방에도 이만한 운동이 없다”고 말했다.

중앙동 탁구교실은 주 2회 수업에 교육비가 월 2만원으로 선착순 접수이고 정원은 30명이다.

◇ 문의 : 중앙동 주민자치센터 (031-481-6453)
김효경 명예기자_poet-hk@hanmail.net

선부2동

석수골 나눔터 사업 실시

매월 셋째 주 화요일 10시부터 2시간 진행



단원구 선부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3월 19일 선부2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서 석수골 나눔터 사업을 실시했다.

석수골 나눔터는 선부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주관으로 매월 셋째 주 화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 진행되며,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해 이웃과 나누고 싶은 물건을 기증하고 기증된 물품을 모아 필요한 이웃에게 나누는 사업이다.

이영철 위원장은 “석수골 나눔터가 단순히 물건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웃 간의 정을 나눌 수 있는 나눔 실천의 장이 되기를 희망하며 많은 주민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배순철 동장은 “석수골 나눔터 사업이 이웃 간의 건전한 나눔으로 이어지길 기대하며, 이웃사랑과 나눔이 넘쳐나는 선부2동을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선부3동

사랑의 쌀독에 쌓여가는 쌀

생각을 키우는 유치원 천사들의 기부



단원구 선부3동 행정복지센터 내에 있는 사랑의 쌀독에 오늘도 반가운 아기 천사들이 고사리 손으로 쌀 봉투를 들고 찾아왔다.

그 주인공은 바로 생각을 키우는 유치원의 원생들이다. 원생들은 집에서 조금씩 모아온 쌀을 사랑의 쌀독에 기부하고 있으며, 일주일에 2~3번씩 6명의 아이가 방문해 사랑의 쌀독을 채우는 쌀 기부 문화는 벌써 10년 이상 이어지고 있다.

아이들이 기부한 쌀은 제도권 내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10명의 어르신과 긴급하게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전달되고 있다.

박상숙 동장은 “생각을 키우는 유치원 원생들이 어렸을 때부터 나눔을 직접 실천하는 경험을 통해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 인성이 바르고 밝은 아이로 자라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호수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어르신들께 장수사진 선물



단원구 호수동은 3월 18일 네오빌주공6단지 경로당과 그 린빌7단지 경로당을 방문해 장수사진을 촬영했다.

이번 행사는 LG전자 베스트샵의 후원으로 호수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어르신들의 아름답고 건강한 모습을 사진으로 남겨 무병장수를 기원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촬영한 사진은 액자로 제작해 전달할 예정이다.

사진 촬영 내내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모습을 담기 위해 노력했으며, 행복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이순자 노인회장은 “장수사진을 준비하고 싶어도 선뜻 찍기가 어려운데 가벼운 마음으로 준비하게 되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박영숙 위원장은 “이웃과 나눔을 실천하는 LG전자 베스트샵에 감사드리며,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호수동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안산시자원봉사센터, 2019 사랑애(愛) 집고치기 국제로터리클럽안산(3750)지구 후원... 어려운 이웃 주거환경 개선



봉사로 이루어지는 사랑애(愛) 집고치기 작업현장

형편이 넉넉찮은 이웃의 주거환경 개선에 안산시 자원봉사자들이 나섰다. 일요일인 지난 3월 10일 이른 아침 본오동 한다가구 주택 2층, 윗집에서 물이 새 얼룩덜룩 지도가 그려진 천장 도배지를 자원봉사에 나선 '아소인'(아름답고 소중한 인연) 회원 두 명이 익숙한 손놀림으로 뜯어낸다. 풀이 발라진 도배지를 붙이고 발이 넓은 솔로 쓸어주자 볼록 튀어 나온 부분 없이 짝 펴졌다. 도배를 새로 할 형편도, 윗집에 수리를 요구할

상황도 못돼, 그냥 거주했던 주인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또 다른 현장에서는 수리공사가 한창이다. 망치로 두들기고 자로 재고, 도안을 그린다. 받침대를 옮겨가며 천장 도배를 한다. 신안2차아파트 상가 2층 청소년 문화 공간 '너나드리'가 새 단장 중이다.

'아소인' 회원 홍나경(59·부곡동) 씨는 요식업 종사자지만 '사랑애(愛) 집고치기' 활동에 매년 참여하면서 전문 도배사가 됐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이 삶의 활력소가 되고 있다"는 그는 "한 달에 한 번 회원들과 함께 집고치기 봉사에 참여하는데, 사람 손이 닿아 확 달라지는 공간을 보면 기분이 좋아지고 느끼는 보람도 크다. 나도 어렵지만 남을 도울 수 있어 행복하다."고 했다.

문화 공간 '너나드리'의 윤명진 간사는 "이곳은 청소년들이 친구들 사이에서 바른 관계를 맺고 스트레스도 해소할 수 있는 공간이다. 자원봉사센터의 지원, 로터리클럽 안산지구의 후원, 아소인 회원 선생님들의 기능 기부로 산뜻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탈바꿈됐다. 고맙다."고 했다.

안산시자원봉사센터 '2019 사랑애(愛) 집고치기' 활동은 국제로터리클럽안산지구와 봉사단체 '아소인', '행복과 사랑 나누기'가 함께 한다. 로터리클럽은 물품과 비용을 후원하고 봉사단체 회원들은 월 2~3회 재능을 기부해 지역의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등 어려운 이웃의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신남균 센터장은 "이웃을 생각하는 자원봉사자 선생님들의 따뜻한 에너지가 사랑은 더하고 아픔은 나누며 행복은 곱하고 있다."고 했다.

사랑애 집고치기 활동은 매월 둘째 주 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 문의: 안산시 자원봉사센터(031-411-9362)
백미란 명예기자_whity0218@naver.com

안산에서 열리는 '2019 경기도민체전', 준비 한창!

5월, 경기도체육대회와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개최... 경기도민이 하나되는 화합의 장

2019년 5월 안산시가 개최하는 경기도체육대회 및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가 '시민과 함께 하는' 성공적인 대회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

제65회 경기도체육대회와 제9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는 1천330만 경기도민이 하나 되는 화합의 장으로 마련된다.

경기도체육대회는 31개 시·군 선수단 1만2천여 명이 참가해 5월 9일부터 11까지 3일 동안 안산 와~스타디움 등 34개 경기장에서 24종목의 경기가 펼쳐지며, 장애인체육대회는 5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 동안 17개 경기장, 17개 종목별로 3천600여 명의 선수와 임원, 보호자가 참가한 가운데 올림픽 기념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번 대회는 안산시가 대규모 스포츠 행사를 통해 도시 분위기를 개선하고 생동감 있는 도시로 변모하기 위한 것으로, 시는 이를 위해 경기도민체전 유치를 신청, 2018년 1월 유치가 결정됐으며, 곧이어 4월 도민체전TF팀 발족과 함께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지난해 10월까지 개최지 답사와 경기장 실사, 기본계획 수립 및 조직구성, 예산확보 등 기획과 준비 단계를 마쳤고, 11월부터 본격적인 실행단계에 들어가 분야별 세부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올 2월초 개·폐회식 대행사를 선정하여 행사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대회 홈페이지 개설과 2차례의 대회 설명회 및 3차례의 보고회 등으로 대회 홍보에도 한창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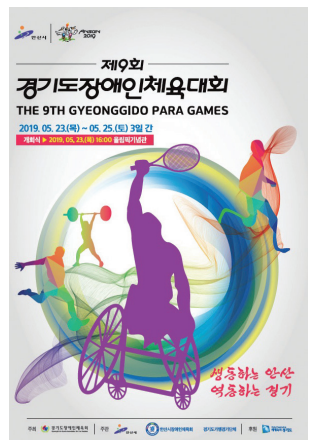
2월부터 대회의 성공을 위해 범시민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고 있으며, 대회가 단지 선수와 임원들만의 잔치가 아닌 선수와 장애인, 비

장애인, 시민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가는 풀뿌리 스포츠 행사라는 점을 알려, 보다 많은 시민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시는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경기도로부터 시설비 예산 77억 원을 지원받아 주경기장인 안산 와~스타디움을 비롯하여 11개 경기장을 보수, 31개 시·군 선수단이 쾌적한 시설에서 경기를 치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노후 체육시설 정비와 체육 인프라 확충으로 생활체육 저변이 확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안산 대회에서는 특색 있는 성화 봉송 행사도 진행 된다. 대부도와 시화호를 끼고 있는 안산만의 지리적·문화적 특성을 살려, 주자 봉송 외에 시화호를 배로 건너는 배 봉송과 대부도의 주요 지점을 말로 달려 봉송하는 기마 봉송도 준비하고 있으며, 대회 전일 대부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성화 안치식도 치를 예정이다.

안산시는 남은 기간 동안 부대행사장 운영, 경기장 의료지원 및 안전관리, 자원봉사자 운영 등의 중점 추진사항과 손님맞이를 위한 주요거리, 경기장 진입로에 대한 환경정비, 대회 기간 선수들이 머물고 갈 음식·숙박업소의 위생 및 친절 등 부서별 유기적 업무 협조사항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안산시 관계자는 "이번 대회가 안산시를 방문하는 선수단, 임원진 및 관람객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이들에게 살맛나는 생생도시, 문화와 예술에 뿌리를 둔 도시, 해양을 품은 생동감 있는 도시로서의 안산시 지역브랜드 향상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대회에 참가한 선수단이나 관람객들이 불편함 없이 대회를 치르고 관람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 꼼꼼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THE 65TH GYEONGGIDO SPORTS FESTIVAL

제65회 경기도체육대회

2019.05.09~05.11. | 개회식 05.09.(목) 18:00 와~스타디움



THE 9TH GYEONGGIDO PARA GAMES

제9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2019.05.23~05.25. | 개회식 05.23.(목) 16:00 올림픽기념관



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현문답’, 2차 간담회 개최

외부 전문가 등 참여해 설문 내용 및 대상 협의… 연구 활동 ‘박차’



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현문답’ 팀이 3월 14일 의회 1층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현문답(현장에 문제도 답도 있다)’팀이 최근 간담회를 개최해 연구 활동 관련 세부 사항을 논의했다.

3월 14일 의회 1층 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현문답 팀원인 박태순, 주미희, 김진숙 의원과 외부전문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김창현 박사, (주)기주씨엔에이 황미라 박사 등이 참석했다.

공동주택 분쟁의 해소 방안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현문답 팀은 이날 회의에서 2월 28일 1차 간담회에서 논의했던 설문 내용 및 범위를 확정하고, 다음 활동 일정을 조율했다.

설문 조사 방식에 대해서는 입주민, 동대표, 관리사무소 소장 등 3개 부문으로 설문 대상을 구분하기로 했으며, 의원들이 직접 설문 조사 대상자를 만나 연구단체 활동의 취지 및 설문 조사 작성과 관련한 협조도 구할 예정이다.

차기 간담회의 경우 4월 중순 이후에 개최하는 것으로 정했다.

아울러 의원들은 시가 운영 중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층간 소음 민원도 각 구청 환경위생과에 접수됐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타 부서 현황에 대해 파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안산시의회의 의원연구단체는 이날 간담회를 개최한 현문답 팀을 포함해 총 5개가 구성·운영되고 있으며, 이들 팀은 현재 주거와 아동, 장애인 복지, 생태·환경, 교통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 활동을 벌이고 있다.

안산시의회 기획행정토 · 도시환경토, 집행부 간담회 개최

제254회 임시회 관련 안건 및 주요 현안 관련 ‘논의’



안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와 도시환경위원회가 3월 12일 시 집행부와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은 이날 기획행정위원회의 간담회 모습이고 사진 2는 도시환경위원회의 간담회 모습이다.

안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주미희)와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나정숙)가 3월 12일 각각 시 집행부와 간담회를 열어 제254회 임시회 관련 안건 등을 협의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기획행정위원장실에서 안산시 정책기획관을 비롯한 시 14개 부서 관계자들과 잇달아 회의를 가졌다.

총 25건의 안건이 논의된 가운데 안산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과 긴급 공공부문 일자리 사업 확대 건, 안산지역 세월호 참사 추모사업 진행 현황, 안산혁신교육지구 시즌Ⅲ 추진방안 수립 연구용역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간담회에서 기행위 위원들은 최근의 지역 경제 상황과 주민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시 집행부 측에 당부하고, 보다 심도 깊은 논의는 다가오는 254회 임시회에서 이어가기로 했다.

같은 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들도 도시환경위원장실에서 시 공원과 및 환경정책과 등 9개 부서 관계자들과 사동공원 조성사업 현황 보고, 안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서별 제1회 추경 예산편성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도환위 위원들은 시 집행부 측의 보고를 들으면서 이번 회기에 처리하게 될 추경 예산안에 관한 이해를 넓히는 데에 집중했으며, 아울러 지역 주민의 관심도가 높거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업들의 경우 수요자 입장에서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두 상임위원회 위원들은 안건이 많아 간담회가 장시간 동안 진행됐음에도 시종일관 진지한 자세로 사안 분석에 힘쓰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시의회는 3월 26일부터 4월 12일까지 18일간 제254회 임시회를 열어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이날 간담회에서 다룬 안건들의 본 심사를 진행한다.

안산시의회 문화복지토, 간담회 개최

안산시 9개 부서 관계자들과 임시회 안건 및 현안 협의



안산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3월 15일 시 집행부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이날 간담회 중 한 장면.

안산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정종길)가 최근 안산시 문화예술과 등 시 9개 부서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제254회 임시회 관련 안건 및 주요 현안에 대해 협의했다.

3월 15일 의회 문화복지위원장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는 △안산문화예술의 전당 시설 개선과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조례 개정(안),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 △공공립 어린이집 확충 계획, △스마트 제조혁신센터 구축 추진 등 총 24건의 안건이 논의됐다.

이 자리에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들은 다가오는 254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조례안과 예산 수반 사업의 사전 검토를 면밀히 진행하는 한편 미진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임시회 전까지 보완을 요청했다.

특히 이번 회기에 지역 경제의 활성화 및 공단 산업 구조 고도화와 연관된 안건들이 여럿 다뤄질 예정인 만큼 시 집행부가 장기적 관점에서 사업 준비를 진행해 지역 경제 생태계의 혁신을 이끌어 줄 것을 당부했다.

위원들은 간담회에 앞서 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테크노파크 측으로부터 스마트시티 구축 중장기 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기도 했다.

간담회를 주재한 정종길 문화복지위원장은 “제254회 임시회에는 올해 시정의 운영 방향을 결정할 안건들의 처리가 예정돼 있으므로 상임위 심사가 충실히 이뤄질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과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잘 생긴 우리 아이

아기이름: 김훈 출생년월: 2017년 5월
태몽: 아빠가 낚시해서 잉어를 잡는 꿈

아기가 이렇게 예뻐도 되나요? ㅎㅎ. 요즘 정말 아이 보는 재미로 삽니다.

아기 이름은 김 훈. 외자죠. 2017년 5월에 낳았습니다. 태몽은 아빠인 내가 낚시해서 잉어를 잡는 꿈을 꾸었네요.

애들 자라는 팔불출이라지만 우리 아이, 잘생겼죠? 잘 커서 나라를 짊어지고 갈 인재로 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김원준(상록구 사사안골2길)



생활팁

알면 도움이 되는 법률상식!



얼마 전 100여명이 넘는 피해자들이 발생한 전세금 사기 사건이 안산을 뒤숭숭하게 했다. 피해자 대부분이 부동산 계약에 익숙하지 않은 사회초년생이었다고 한다. 이들은 부동산 중개소를 통해서 계약했음에도 사기를 피하지 못했다. 전세 계약 시 중개소를 통하더라도 꼭 체크해야 할 점을 알아보자.

전세보증금을 주고 입주해 사는 것을 법률 용어로는 임대차라고 한다.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다. 모든 계약 체결과 마찬가지로 전세 계약 시에도 계약 당사자 본인이 맞는지 확인을 꼭 해야 한다. 이번 사기 사건에서 피해자들은 집주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정당한 대리권이 없는 중개인과 계약을 체결해 문제가 됐다. 정당한 계약 당사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것이다.

주택의 소유자, 즉 집주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면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을 제시 받고 등기부상 소유자의 인적사항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주택 소유자의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처분 권한이 적힌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요구해야 한다.

또 계약 체결 전과 체결 시 부동산등기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 표제부의 지번과 계약서상 임차하려는 주택의 번지수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한다. 또 등기부상의 '갑구'에서 소유자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확인해서 계약 당사자가 맞는지 확인하고, '을구'에서는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등기되어 있는지 확인해서,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많이 설정되어 있는 주택은 피해야 한다.

전세 계약 체결 이후, 입주하게 되면 되도록 빨리 전입신고를 하고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임대차는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임차인이 ① 주택에 입주하고 ② 주민등록을 마친 때(전입신고)에는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긴다. 이는 주택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하고 대항할 수 있다는 뜻이다.

또 위 두 가지 요건에 더해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까지 갖추면, 비록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우선변제권이 생긴다.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순위가 정해지고 배당금 중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법은 전세보증금이 재산의 전부인 소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소액임차인에게는 최우선변제권을 보장하고 있다. 안산시의 경우, 보증금이 6000만원 이하인 주택의 임차인은 경매신청 등기 전까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20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 변호사 김지희(안산시청)

책 읽는 안산 / 4월 추천도서

이달의 주제 『대한민국 임시정부 탄생 100주년』

아동



임시정부에서 날아온 김구의 편지

저자 장세현 / 출판사 채우리

임시 정부가 대한민국 건국에 뿌리라고 할 수 있다. 임시 정부를 이끈 사람들은 해외에서 숏한 고생을 했다. 그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 바로 백범 김구 선생으로 어린 시절부터 대한민국이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임시 정부를 이끌며 독립운동을 펼치고 조국의 통일을 위해 애쓰다 돌아가실 때까지의 이야기를 편지 형식으로 썼다.

청소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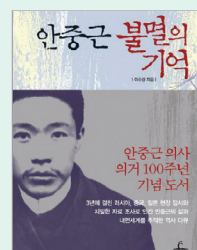


꼬리에 꼬리를 무는 한국사 인물이야기

저자 김상훈 / 출판사 탐

사건 위주로 정리된 역사에서 역사의 흐름을 읽기 쉽지 않다. 역사라는 큰 흐름에 인물로 방점을 찍어 인물과 함께 자연스럽게 사건이 떠오르게 하는 연상작용에 착안한 한국사 안내서이다. 인물 선정은 중학생이 사용하는 여러 종의 역사교과서에 공통으로 등장하는 인물을 선별하였고, 인물과 사건의 관계를 102개의 꼭지로 정리하였으며, 사건 속 인물 361명의 이야기를 실었다.

성인



안중근 불멸의 기억

저자 이수광 / 출판사 추수밭

안중근의 삶과 내면세계를 추적한 역사 다큐 픽션, 사형이 집행되기 전 날, 안중근이 자신의 전 생애를 되돌아보며 떠올리는 기억들로 구성되어 있다. 어린 시절을 보낸 고향 청계동, 항일 투쟁에 나간 계기, 일본군 수비대를 맞아 전투를 치르고 참패하여 12일 동안 굶주림 속에 생사를 오갔던 나날, 그리고 이토 히로부미 저격을 준비하고 거사를 실행했던 순간들, 이어서 재판을 받으며 마지막을 담담히 받아들이는 장면들이 담겨 있다.

자료제공 / 중앙도서관



독자
투고

건강한 가족! 안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씬타다



우리나라가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이혼율이 증가함에 따라 많은 변화가 나타나지만, 그 중 가족 구조 변화가 더욱 두드러진다.

두 세대가 함께 사는 핵가족을 비롯하여 조부모를 모시고 사는 확대가족, 그리고 사별이나 이혼으로 혼자 사는 독거 어르신과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미혼남녀가 늘면서 1인가구도 4가구 중 1가구로 증가하고 있다.

확대가족은 조부모와 가까운 동네나 같은 아파트 단지 안에서 살면서 독립적으로 세대를 형성하는 수정확대가족으로 변화했는데, 이는 미국에서는 'Families living close enough to share hot soup(스프가 식지 않는 거리에 사는 가족)'이라 하여 근거리에서 부모님을 살피며 살아가는 가족 구조인데 일상화되는 추세이다.

특히, 이혼율 증가에 따른 가족해체는 이혼과 재혼,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미혼모가족, 기러기가족, 위기가족 등의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예비부부 교육을 받은 부부의 이혼

율은 그렇지 못한 부부의 이혼율보다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가족해체 예방이 중요한 목적인 안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신혼기부부 교육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가 된다.

우리 센터는 가족상담, 가족교육, 가족문화, 가족역량강화사업, 미혼모·부초기지원사업, 공동생활형 주거지원사업과 아이돌보미사업을 지속 운영하고, 올해 시범사업으로 임신상담사업도 시작한다. 또한, 가족·개인의 문제 상담, 찾아가는 아버지·부모 교육, 한부모가족·조손가족·위기가족 등에 대한 사례관리 및 지역연계, 자녀의 양육을 도와주는 아이돌보미 파견과 재가양육미혼모 위기지원 및 주거지원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안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는 변함없이 친구처럼 안산시민 곁에 있을 것이고, 가족의 행복과 개인의 행복이 균형을 이뤄 건강한 가족이 되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다.

• 박영혜(안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장)



독자
투고

안산시 지역화폐 다운의 활성화를 기대합니다

'지역화폐'라는게 무엇인지 들어보셨나요? 생소하지만 중요하고 의미있는 이 사업, 안산시의 안산사랑상품권 명칭이 '다운'으로 정해졌다고 한다.

다운은 많을 다(多)에 따뜻한 온(溫)으로, 소상공인, 골목경제까지 다 함께 따뜻해지길 바란다는 뜻으로 시민들과 소상공인이 협력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지역화폐 다운 사업이 잘 돼서 우리의 새로운 경제 아이템으로서 안산시의 지역경제를 더 활성화시키는데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지역화폐가 무엇이냐면 안산에서 인증한 지역내 가상화폐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는 것을 뜻한다. 이걸 국가에서 발행하는 화폐와 달리, 특정지역 내에서 유통되고 이자가 없으니 누구나 발행할 수 있는 돈으로서 대안화폐라고 부르기도 한다. 지역 공동체 안에서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나누고 순환하는 다양한 시도이다.

요즘 가상화폐의 투기성 논란도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안전하게 사용할수 있고, 투기성도 전혀 없는 지역내 화폐라고 한다. 이게 잘 운영되어 지역화폐를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늘리고, 단순히 돈을 주고받는 것을 넘어서서 지역화폐를 통해 지역 농산물, 재활용품, 노동, 재능도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또한 다운을 통해 경제활성화의 연결 고리가 만들어지고 안산시 관내 지역경제가 더 활기를 띠는 좋은 계기가 될것로 본다.

여기에 재능나눔 목록 같은 것도 추가시켜 재활용품, 노동력, 품앗이 함께하기, 반찬 제공, 쿠폰, 생일축하 이벤트 등 다양하게 접목시킬수도 있을법 하다.

특히 지역화폐가 좋은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지역 내 자원들의 상호교환을 촉진시켜, 지역이 생산한 부가가치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일종의 자물쇠 역할을 하며 이를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한다는 점이다. 안산의 다운 사업이 진정한 안산경제를 이끌어 갈 미래의 경제비타민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유병양(단원구 만해로)



독자
투고

오랜만에 공기 좋은 날 노적봉을 걸으며...

다크 서울... 온라인에서 미세먼지가 짙게 깔려 어두운 분위기를 내는 서울을 다크소울이라는 게임에 빗대어 칭하며 우스갯소리로 한 말이다. 아침에 일어날 때면 밖에 '비가 내리고 있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게 어두웠던 날이 며칠이나 계속됐다.

가끔 퇴근길에 안산천을 지나면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운동하는 사람들을 본다. '마스크 쓰고서라도 운동을 하는 것이 좋은걸까? 하지 않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평소에 자주 운동을 하지 않는 나한테 크게 의미 있는 물음은 아니다.

최근에도 공기가 좋을 때가 있었다. 그럴 때면 어김없이 날이 추웠다. 미세먼지와 추운 날씨, 둘 중에 꼭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면 나는 추운 날씨가 더 좋을 것 같다. 오늘은 평소와는 다르게 공기도 좋은 날씨 또한 썩 좋지 않다. 오랜만에 보는 파란하늘과 약간은 차가운 공기가 더 없는 상쾌함을 줬다.

'이런 날 걸지 않으면 언제 또 걸으랴?!' 나는 노적봉을 향했다. 노적봉에 도착해 보니 좋은 공기를 만끽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나와있었다. 하긴, 나같이 운동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나오게 만드는 날인데, 다른 사람이야 오죽했겠는가. 유모차에 탄 어린 아이부터 걸음이 힘들어 보이시는 어르신까지 모두들 열심히 산책을 하고 있었다. 가끔 뛰는 분들도 종종 보였는데 숨소리로는 천천히 걷는 내가 그분들보다 더 거칠었다. 운동을 너무 게을리 한 것 같아 조금은 부끄러웠다.

상쾌한 공기를 마시며 노적봉을 걷다보니, 내가 그동안 이렇게 좋은 곳을 잊고 살았다는 아쉬움이 들었다. 푸른 나무와 맑은 공기, 깨끗한 천(川)과 걷기 좋은 산책로...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여기가 바로 안산이구나! 녹지와 공원이 곳곳에 있는 녹색 도시! 늘푸른 상록수와 같은 생생 도시! 그래! 여기가 바로 내가 사랑한 안산이다!'

맑은 공기와 함께 내 애향심이 더 없이 커지는 그런 하루였다. 부디 오늘 같이 공기 좋은 날이 계속 됐으면 좋겠다.



• 이영재(단원구 광덕동로)



안산시 시정소식지에서는
시민여러분의 생활수기를 모집합니다.

개인의 연락처, 주소 및 증명사진(또는 관련 글과 관련된 사진)을 함께 보내주셔야 채택됩니다. 글자 크기는 10pt(포인트) 기준으로 보내주신 사안이 채택된 경우 소정의 원고료(5~7만원)가 지급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안산시 "건강체육 야간운동"

- ◇ 기간 : 2019.4.1.~10.31.
- ◇ 시간 : 20:00~21:00(공원마다 상이 함)
- ◇ 장소 : 상록구 11개소, 단원구 12개소
- ◇ 대상 : 지역주민 누구나
- ◇ 내용 : 스트레칭, 에어로빅, 라인댄스, 걷기 근력강화 등
- ◇ 문의 : 상록구(031-481-5925) / 단원구(031-481-6753)

치매공공후견사업 공공후견인 모집

- ◇ 모집기간 : 2019.3.25.~4.5.
- ◇ 모집대상 : 4명(상록구 2명/ 단원구 2명)
- ◇ 자격요건 : 모집공고일 현재 안산시 거주자, 「민법」제 937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 ◇ 활동내용 : 피후견자(치매환자)의 의사결정 지원, 의료 행위 등의 등 신상결정 대행, 피후견자(치매환자)의 안전망 조력자 역할, 재산관리(복지급여 등)
- ◇ 활동비 : 피후견인 1인 담당/ 월 20만원
- ◇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참조
- ◇ 신청방법 : 센터 방문 또는 우편접수
- ◇ 문의전화 : 상록수치매안심센터(☎031-481-5901)/ 단원치매안심센터(☎031-481-6555)

아이돌봄 지원사업



아이돌봄지원사업이란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서비스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이돌봄 홈페이지(www.idolbom.go.kr) 참조 또는 1577-2514(031-501-0340, 0033)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제4회 안산시 장애인 복지박람회 개최

장애인의 꿈, 가치있게 나눠요! 다함께!



- ◇ 일시 : 2019.4.13. 12:30 ~ 17:00
- ◇ 장소 : 안산문화광장 (전망대광장)
- ◇ 내용 : 기념행사, 장애인생산품 홍보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 ◇ 문의 : 안산시청 장애인복지과 (031-481-2203)

아이 LOVE YOU

‘아이 낳고 살기 좋은 안산’ 콘텐츠 공모전 안내

- ◇ 대상 : 대한민국 거주 누구나(지역제한 없음)
- ◇ 접수기간 : 2019.3.26.~4.19.(25일간)
- ◇ 접수처 : (우05402)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고잔동) 안산시청, 여성가족과 출산지원팀 아이 LOVE YOU 공모전 담당자 앞
- ◇ 문의안내 : 안산시 여성가족(031-481-2303/2604/2606)
- ◇ 총상금 : 총 350만원
- ◇ 작품규격(권장) : 안산시청 홈페이지 참조
- ◇ 접수요령
 - ① 안산시 홈페이지 ⇨ 시정안내 ⇨ 시정소식 ⇨ 새소식 ⇨ 공모 문안 안내에 따라 포스터 · 영상 · 로고디자인 등 제작하여 이메일이나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 참가신청서의 모든 항목 및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작성 및 제출 필수(서명이나 도장이 날인 된 신청서나 동의서 스캔 후 제출)
 - ② 이메일 제목(아이 LOVE YOU 공모전_분야_이름)으로 제출

주민밀착형 탄력순찰 지금 신청해 주세요!

탄력순찰이란 온 · 오프라인을 통해 순찰을 희망하는 시간과 장소를 선택해주시면 경찰이 참고하여 순찰하는 순찰방식입니다.

- ◇ 신청방법 : 온라인(순찰신문고 : patrol.police.go.kr) 또는 관할 지구대 · 파출소에 방문 신청
- ※ 안산상록경찰은 언제나 안산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제1회 단원 김홍도 연구과제 공모

- ◇ 연구주제 : 단원 김홍도를 조명할 수 있는 연구(자유주제)
- ◇ 응모자격 : 누구나
- ◇ 지원금 : 총 1,000만원 이내(0명)
- ◇ 공모일정 : 2019.5.1.~5.13.(연구계획서 접수)
- ※ 기타 자세한 공모일정 및 내용은 안산문화재단 홈페이지(www.ansanart.com) 참조 또는 단원미술관으로 전화(031-481-0509)문의 부탁드립니다.

생생한 일자리 정보!

희망과 열정이 있는 취업마당! 안산시 일자리센터가 도와드립니다!

안산919취업광장

- ◇ 기간 : 2019.4.19. 14시~16시
- ◇ 장소 : 안산시청 대회의실
- ◇ 참여대상 :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
- ◇ 주최/주관 : 안산시, 안산고용복지+센터
- ◇ 내용 : 구인 · 구직 현장면접에 의한 채용
- ◇ 문의 : 안산시 일자리센터 (031-481-2919/2277)

목요일에 희망 잡(Job)고(Go)

- ◇ 일시 : 2019.4.4. 14시~16시
- ◇ 장소 : 안산시청 대회의실
- ◇ 참여대상 : 취업을 원하는 청년구직자
- ◇ 주최/주관 : 안산시/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
- ◇ 내용 :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에게 구인 정보와 면접 기회 제공, 인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구인업체에 인력 채용 기회 마련
- ◇ 문의 : 안산시 일자리센터(031-481-2931/2882)

2019 제1회 단원김홍도 연구과제공모

2019.5.1(수) ~ 5.13(월) 18:00까지 / 1398번

연구분야 : 전 분야(인문, 사회, 예술, 공학, 과학, 기타)

연구주제 : 단원 김홍도를 조명할 수 있는 연구(자유주제)

응모자격 및 형태 : 누구나 신청 가능, 개인 혹은 단체로 신청 가능

연구 지원금 : 총 1,000만원 이내(0명)

지원기간 : 2019년 5월 ~ 11월(예정)

연구계획서 접수 : 2019.5.1(수) ~ 5.13(월) 18:00까지 / 1398번

선정연구발표 : 2019.5.27(일) / 홈페이지 공지 및 개인 통보

연구지원 협약 체결 : 2019.6.3(화) / 장소 추후 공지

연구논문발표 : 2019.11.15(수) 논문발표식 통해 2019.12.~2020.6.

* 공모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참조사이트 : www.ansanart.com / ID: dnmson01 / PW: 1234

문의처 : 안산문화재단 단원미술관 031-481-0509

연구계획서 및 공모서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산문화재단 단원미술관 홈페이지(www.ansanart.com) 참조

어린이보호구역에선 천천히!!

우리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요!

스쿨존에서는 주변을 잘 살피며 시속 30km이내로 서행해요

스쿨존에 설치된 횡단보도에서는 무조건 일시정지 해요

주·정차는 금물~ 항상 방어운전 안전운전 잊지말아요

어린이보호구역 SCHOOL ZONE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기간 2019.3.11.~6.10.

신고방법 권익위 홈페이지, 방문접수, 우편, 모바일 앱

상담안내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

국민권익위원회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